금주의 기도

기독교 가치관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분별력을 가지며 세상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2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www.chpress.net | 주후 2020년 10월 10일 (토) 제 1797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CT, 트럼프 대통령부부 확진에 성경 따라 기도하는 크리스천리더들 보도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는 E. M. 바운즈(E.M. Bounds)는 그의 저서(The Weapon of Prayer)에서 "기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단지 종교 놀이를 하고 있을 뿐이고, 그리스도의 병사인 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에게는 갑옷도 탄약도 없으므로 사악하고 논쟁에 강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 한 마디로 진정한 크리스천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세상과의 논쟁에도 기도하며 맞서야 한다는 권면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미국 사회와 모든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 이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교회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코로나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이자마자, 성경에서 "권위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지시한 바에 따라 크리스천 리더들은 미국인들이 치열한 당파 논쟁이나 양극화에 빠지지 말고 디모데후서 1장의 원리에 따라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Christians Call for Prayer After Trump Tests Positive for COVID-19: Leaders urge Americans to "put aside partisan politics" and pray in the spirit of 1 Timothy 2).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코로나19에 걸리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한바탕 난리를 겪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백악관 직원은 물론 미 상원의원까지 확진자가 나오면서 수도 워싱턴이 사실상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한때 제기됐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증상이 경미하다고 밝혔지만 확진 하루도 안 돼 인근 군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 등 상황은 긴박하게 전개됐다. 트럼프 대통령 확진으로 한 달 남은 미국 대선도 영향을 받게 됐고, 뉴욕증시 등 미 경제계도 한때 패닉에 빠졌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나타낸 후 각국 정상들이 쾌유를 비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일부는 냉소를 보내기도 했다.

캐나다 출신 저널리스트이자 럿거스 대학 교수 나오미 클라인은 트럼프 대통령 확진에 대해 그의 '진실 무시하는 태도 연관'된다고 진단한다. 다시 말해서, 세계에서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잇달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태에 '진실을 자신의 뜻대로 구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쓴 소리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그러나 교회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은 미국인들에게 정치적 입장이나 성향에 관계없이 대통령과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라고 트위터를 통해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불과 한달 남짓 남은 대통령 선거와 대선 캠페인 그리고 대선 토론을 포함하는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크리스천 리더들의 트위터 게시물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Harvest Christian Fellowship의 목사 겸 전도자 그렉 로리(Greg Laurie)가 포함됐다. 로리는 이전에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함께 기도했고, 교회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독교 옹호단체(Bread for the World)를 이끌고 있는 유진 조(Eugene Cho) 목사는 트위터 팔로우들에게 "당파 정치를 제쳐두고 진정으로 대통령과 영부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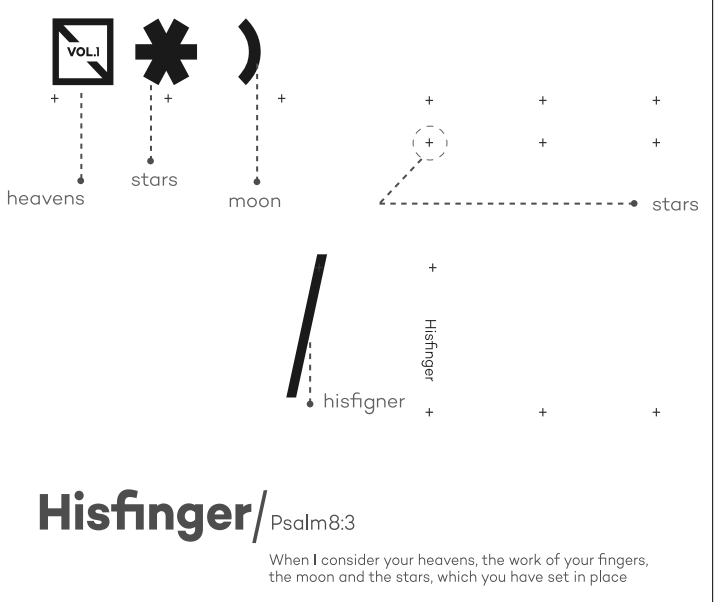
지난 목요일 밤에 올려진 트위터 메시지에서는, 워싱턴 외곽에 있는 복음연합(The Gospel Coalition)의 조 카터(Joe Carter)와 McLean Bible Church가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인용해 "모든 사람, 즉 왕과 권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와 감사를 드려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속에서 평화롭고 조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선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라고 올렸다.

이 구절은 오랫동안 크리스천들이 대통령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도록 영감을 줬고,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온라인에서 중요한 정치적 행사가 있게 되면 계속 인용됐다.

〈3면으로 계속〉

사 고

본지 부설 출판사 '히즈핑거' 쇼핑몰 Hisfingermall.com 오픈



코로나 팬데믹 사태 중에도 문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신문 제작을 멈추지 않아온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인터넷 시대 물결 속에서 발전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콘텐츠 제작을 위해 부설 출판사 '히즈핑거'를 세우고 책 출판을 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지난 7월부터 쇼핑몰을 개장했다. 생활용품을 위주로 한 제품을 취급하며 티셔츠 판매부터 시작했다. 용품에는 성경구절을 삽입해 전도를 목적으로 하며, 판매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품목을 늘이고 더 나아가 문화콘텐츠 제작을 기획하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3면 시 론 최해근 목사

4면 푸른초장 피종진 목사

16면 One Story 21세기 말씀의삶 홍요셉 선교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싱글맘, 싱글대디,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젼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타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323-737-7699, 800-669-0451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Grove Blvd., Graden Grove, CA 92844

크리스천 문화사역 Hisfingermall.com 교회단체주문시 할인해드립니다.

Hisfinger Collection VOL.1 / Psalm 8:3

● 발행인 칼럼 ●

멘델스존 교향곡 5번 4악장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이다. 10월의 가을은 예쁘다. 단풍이 그렇고 하늘도 그렇다. 그런데 왠지 외롭다. 지난 봄 그리고 여름에 내 주위를 떠난 것이 많아서인가, 우수수는 아니지만 간간히 떨어지는 나뭇잎 때문인가, 아니면 곧 맞다드릴 겨울이 부담스러워서인가. 그대에게 이 10월에 크게 가장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개신교도들은 10월을 종교개혁의 달로 기억한다. 로마 카톨릭을 향한 95개조의 반박문이 비텐베르크 성벽에 붙여진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으니 올해가 종교개혁 503주년 해이다. 그 날 이후 번진 종교개혁의 불길이 온 세상에 이르며 종교 뿐 아니라 수많은 영역을 바꾸게 될 줄을 루터 자신도 몰랐으리라.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그 수많은 영역 중의 하나는 음악분야이다. 루터 자신이 음악을 사랑하였고 음악에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만든 "내 주는 강한 성이요"는 그의 신앙고백이었고 지금까지 많은 자들에게 용기와 감동을 주고 있다. 종교개혁의 확산에 지대한 공을 끼친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은 성경의 대량 인쇄와 출판, 보급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점차 악보의 인쇄와 출판도 가능하게 하였는데 종교개혁의 신앙을 담은 음악들이 작곡되고 널리 퍼지게 되었다.

멜란히톤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도왔던 당대의 탁월한 인물이다. 그를 중심으로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져 그 당시 황제 칼 5세에게 제출되었다. 그 장소에 갈 수 없었던 루터는 자기의 종교개혁 사상이 담긴 이 고백서를 너무 좋아했다. 종교개혁 역사에 있어서 신앙고백서는 매우 중요하다. 벨직 신앙고백서가 그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러하며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는 개신교의 공식적인 신앙고백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1830년 이 고백서가 만들어진지 300주년을 기념하여 교향악이 작곡되었다. "멘델스존의 5번 교향악: 종교개혁"이 바로 그것이다, 멘델스존 가문은 유대인이었으나 그의 할아버지가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이 곡은 원래 멘델스존의 두 번째 교향곡이었는데 5번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로마 카톨릭의 반대로 이 곡을 바로 연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교향곡의 4악장에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웅장한 선율이 흐른다. 이 가을 듣고 싶은 음악이 많으시리라. 멘델스존의 교향악 5번을 듣는 것은 어떠실까. 팬데믹이 끝나지 않아 슬픈 이 가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암울한 소식으로 수놓은 이 가을,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을 잃은 이 가을, 무엇인 우선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를 분간할 수 없는 이 가을, 유혹의 소리가 커지고 타협의 마음의 흘러나는 이 가을,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도 없는 이 가을. 맑은 가을 아래의 어울리지 않는 어둠을 몰아내며, 상큼한 가을과는 어울리지 않는 웅크림에서 우리를 일으킬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음악이 여기 있다. 멘델스존 교향곡 5번 4악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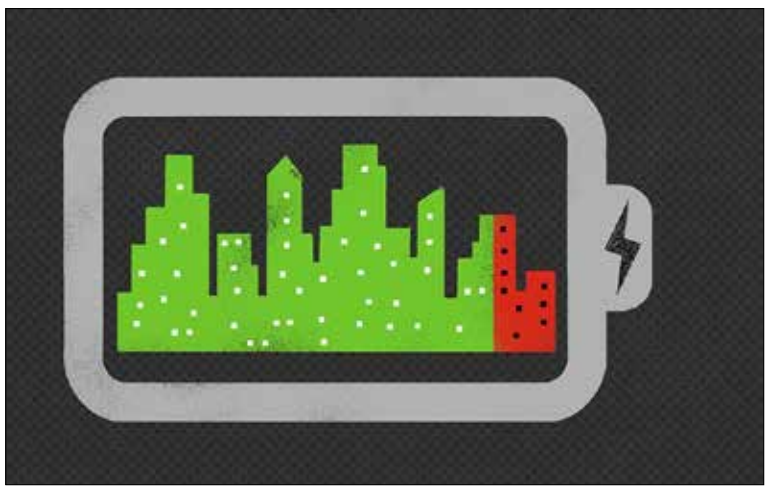
코로나 팬데믹, 지구촌 경제회복에 치명적

이코노미스트, 세계경제회복 조짐 보이나 산업, 국가 따라 천차만별 분석 보도

적어도 경제적 관점에서 코로나 팬데믹 최악의 날은 성금요일이었다. 4월 10일 세계 각국은 엄격한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사실상 집에 감금된 상태였다. 전 세계 GDP는 20% 급감했다. 시간이 흘러 봉쇄조치가 하나씩 해제됐고, 경제가 회복하는 조짐이 보인다. 애널리스트들은 3분기 세계 GDP 성장률이 2분기 대비 7%나 성장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V 자형 경기 회복을 통해 금방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길지 모른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정상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정부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 투자 등 경제적 산출이 감소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의 테이블 이용률을 제한하고, 스포츠 경기관람을 금지해 소비가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한다. 소비자와 기업이 느끼는 경기 불확실성은 사상 최고수준이다. 이 때문에 기업은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과연 지구촌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다.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Is the world economy recovering? A recovery is taking shape-but it is extraordinarily uneven).



상품경제는 7월 펜데믹 이전 회복, 서비스산업은 절반 수준
국가간 성장률 격차 요인: ①산업 구성 ②신뢰도 ③경기부양책
"90%경제" ...최대경기부양책 택한 미국, 올 경제지표 최고 전망

골드만삭스의 계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 세계 GDP가 7-8% 감소했다. 이것은 이코노미스트지의 지난 4월 기사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다. 해당 기사에서 봉쇄조치가 해제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설명하기 위해 "90% 경제"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세계경제는 90%의 가동률을 보이지만 산업별, 국가별로 천차만별이다. 일부 산업, 국가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지만 다른 산업의 경기 또는 국가의 경제는 참담한 수준이다.

"90% 경제"란 코로나 봉쇄가 풀리더라도 소비, 생산 등 일상 경제는 90% 수준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보통 "90%"는 그런대로 괜찮은 상태를 뜻하지만 경제 분야에서 90% 회복이라는 의미는 GDP가 10% 감소한 상태로서 매우 나쁜 수준이다.

상품과 서비스를 나눠서 살펴보자. 상품 경제는 회복이 빨랐다. JP모건체이스는 지난 7월 전 세계 소매 판매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발생 이후 2조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됐고, 전 세계 소비자들은 정부 지원금으로 노트북 컴퓨터부터 아령에 이르기까지 집에서 지내는 데 필요한 온갖 물건을 비축해 두었다. 이것은 세계무역이 경제학자들의 부정적 예상보다 잘 버텨온 이유이기도 하다. 글로벌 공장의 생산량은 봉쇄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반면, 서비스 산업은 아직 팬데믹 이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람들이 인파가 몰리는 곳을 꺼리기 때문이다. 예약 플랫폼인 오픈테이블은 레스토랑의 고객 수가 팬데믹 이전보다 30-40%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항공편은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 간 경제회복 격차는 산업별 차이보다 더 크게 벌어졌다. 경기 침체기에 국가 간 성장률이 차이가 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올해 생산량이 폭락하면서 국가 간 성장률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다. 부유한 국가들이 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월 16일 새로운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OECD의 경제성장 전망은 몇 달 전보다 나아졌다. 같은 날 미국 경제 전망을 발표한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다른 기관도 과거의 경기 전망보다 개선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G7 국가 중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와 가장 낮은 나라의 격차는 6.7%로 10년 전 글로벌 경제 위기보다 차이가 훨씬 벌어졌다. 주요 경제대국 중 중국만이 올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나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지만, 재앙 수준으로 타격을 받은 일부 나라들보다는 훨씬 낫다. 반면, 영국은 1709년 대혹한(Great Frost) 이후 가장 극심한 불황에 직면했다.

몇몇 경제학자들은 국가 간 큰 격차는 GDP 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통계적 허상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정부 지출을 집계하는 방식은 학교 폐쇄나 병원 예약 취소가 GDP에 미치는 악영향을 다른 나라에 비해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생각만큼 크지 않다. 생산량 감소의 대부분이 정부 지출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가주 장의사 직원 구함
1. 안수받은 목사님1명과 사무실 여직원
2. 한국어,영어 능통하신분
3. 컴퓨터 하실수 있는분
562)622-9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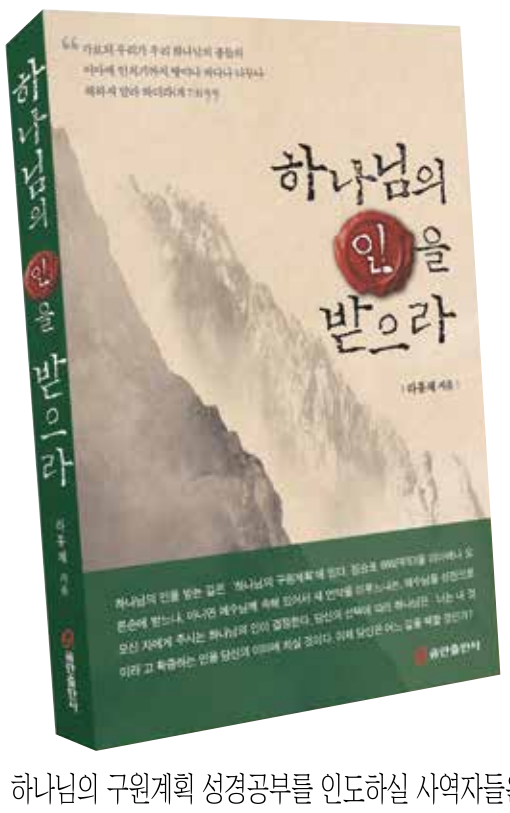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지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치의학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안.내
- 치아이식(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323-665-0009(LA)(판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면에서 계속〉

CT가 이전에 보도한대로 가장 많이 보는 성경 사이트(Bible Gateway)에 따르면 2016년 대선 다음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대한 검색이 평균의 10배에 달했으며, Google 트렌드에 따르면 다음 1월 취임식 무렵에 다시 증가했다. 또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주최한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기도의 날 주제였다.

남침례교회(SBC) 집행위원회의 의장이자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 태스크 포스의 회장인 플로이드 목사(Ronnie Floyd)는 작년에 CT에 이렇게 말했다. "40년 이상 남침례교회의 목사로서 저는 어느 정당이나 누가 집권했는지에 관계없이, 주일 예배동안 우리나라 대통령, 선출된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에서 권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지도력과 정책뿐만 아니라 특히 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 최근 트럼프를 위한 복음주의자 집회에서 지지자들은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대통령의 보호를 위해 더 간곡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트윗에 언급된 성경의 또 다른 구절은 역대하 7장 14절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코로나바이러스 반응에 대한 정치적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백인복음주의자들은 나머지 인구 (70%가 우려한다고 답함)만큼 COVID-19의 확산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이 질병에 감염된 사람을 알 가능성이 높다(Data for Progress survey). 그만큼 복음주의자들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닥쳤을 때 하나님에게 병자를 치료하고 돕고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입원 사흘 만에 퇴원해 백악관으로 귀환했다.

코로나 팬데믹, 지구촌 경제회복에 치명적

〈2면에서 계속〉

국가 간 성장률 격차의 요인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산업 구성이다.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소매업과 숙박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독일과 같은 제조업 강국보다 충격에 크게 흔들리는 편이다. 더욱이, 독일 제조업은 글로벌 무역 회복의 혜택을 받았다.

두 번째 요인은 신뢰도다. 이 요인은 봉쇄조치 기간의 국가별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 영국 정부의 무능한 코로나 대응이 영국의 심각한 경기침체를 불러왔다는 뜻이다. 정부의 대응을 믿지 못한 영국 국민들은 다른 유럽 국민들보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렸다. 이에 따라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지 못했다.

세 번째 요인은 경기 부양책이다. 미국 의회가 추가 부양책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미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채택했다. OECD는 미국이 올해 경제선진국 중 경제지표가 가장 좋은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90% 경제"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 일부 국가는 추가 봉쇄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생산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적절히 조절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95% 경제에 다가갈지도 모른다. 실제로 OECD는 올해 경제가 생각보다 더 크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

백신을 전 세계에 충분히 보급할 수 있다면, 세계경제가 빠르게 정상 궤도로 진입하리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불황의 흉터가 남을 것이다. 기업이 현재의 투자를 꺼리는 것은 미래의 수익성 전망이 낮기 때문이다. 여러 기업에 중복된 생산자원을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팬데믹 이전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미국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2023년까지 미국의 실업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인 4%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전문가들은 백신이 곧 널리 보급될 것이라 낙관하면서도, 2025년이 돼야 실업률이 회복되리라 전망한다. 마치 코로나 질병이 우리 신체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이 유발한 경기침체는 앞으로 한동안 세계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

뉴욕교협 47회기 정부회장 후보등록마감

회장 문석호 목사, 부회장 김희복 김요셉 목사

회장후보 문석호 목사

부회장후보 김희복 목사

부회장후보 김요셉 목사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재홍 목사)는 47회기 회장, 부회장, 감사 입후보 등록을 10월 2일 오후 4시에 마감했다. 선관위는 지난 5일 모임을 갖고 후보를 확정했다.

회장에는 현 부회장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가 단독으로 등록했다.

목사 부회장에는 김희복 목사(뉴욕주찬양교회)가 9월 30일에, 김요셉 목사(예수생명교회)가 10월 2일 등록했다. 감사 등록자는 없다.

평신도 부회장은 관례에 따라 현 이사장 김영호 장로가 등록해야 하지만 본인이 고사해 현 교협 부이사장 백달영 장로(퀸즈한인교회)가 후보가 됐다.

감사는 후보등록자가 없어 총회 석상에서 선출하게 된다.

9일(금) 오전에는 후보자의 소견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며 정기총회는 10월 26일(월)에 열린다. 장소는 미정.

〈유원정 기자〉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8.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시 론

코로나 시대의 균형 잡힌 신앙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눈에 보이는 일상적인 삶에 심각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더 큰 손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처와 질병은 쉽게 무시되거나 잊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 신앙인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몇 주에 나누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으로 어떻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1. 성경으로 돌아가라.

언제나 그렇듯이 새로운 질병이 나오고 그 질병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치료법이 개발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실험이 요구됩니다. 이번에 나온 코로나만 하더라도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린 첫 진단과 방역법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발병되고 난 후 몇 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너나 할 것 없이 '마스크'착용이 가장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방역도구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돈스러울 때에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해석하여 그 성경적 가르침을 포기하거나 양보하고 불분명한 이론에 기대는 것은 대단히 경솔하고 잘못된 처사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성경입니다!

2. 일반은총으로서의 과학적 발견을 이용하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 명확한 과학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걸음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온 분이라면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과학적인 사고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질서와 그 이론을 찾아내어 비신앙인들이라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과학이라면 성경을 억누르거나 성경 역시 과학을 거부하지 않고 양자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합니다.

코로나 예방과 관련된 과학적 발견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스크를 사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기만 하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27명이 한 가정에서 모여 '동충하초'에 대한 모임을 가진 후 26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딱 한 사람만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임 초기에는 마스크를 사용했지만 이후 과일과 커피를 마시면서 마스크를 벗은 채 먹고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는데 바로 그 시간에 감염이 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이런 과학적인 발견을 믿음을 앞세워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더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미 발견된 명백한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는 억측으로 마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을 넘어 일을 하셔야만 하는, 소위 말하는 기적을 일으키셔야만 하는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복음적인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명백한 과학적 발견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이라도 집중팔구 코로나에 감염될 것입니다. 만일 과학적 발견을 무시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명백하게 지지를 받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바른 걸음을 걸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독사에 물려도 바울처럼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면 독사의 독은 더 이상 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인 발견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코로나시대에 신앙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기만 하면 반드시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이 아님을 이미 교회 내에서 혹은 교회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모임에서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일 예배당에 모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감염의 근원인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교회를 향한 정당하지 못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이미 발견된 과학적 사실들을 사용하여 온당하지 못한 요구를 거부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는 우리 생활의 가장 중심에까지 접근해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영역에까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과학적인 발견들을 바르고 진지하게 사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은혜롭게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2) 샬롬.

thechoi82@yahoo.com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오래 참으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매사에 급합니다. '빨리 빨리'문화 덕분에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때로는 잘 참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급합니다. 컵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은 후, 3분을 참지 못해서 뚜껑을 열어 젓가락을 휘젓습니다. 비행기가 멈추기도 전에 짐칸에서 짐을 내리고 문이 열리는 즉시 내릴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급함을 잘 참으십니까? 혹시 잘 참다가도 "왜 나만 참아야 해? 왜 나만 항상 양보해야 해?"하는 생각이 복받쳐서 밤에도 잠을 못 이루거나 화병에 걸린 적은 없습니까?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아서 분노의 화산이 폭발한 적은 없으세요?

하지만 성경은 오래 참음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참을 인(忍)자 세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첫째, 원망을 중단하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우선 남을 원망합니다.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원망합니다.

원망을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남의 탓이란 확신이 생깁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원망이 마음에 쌓이면 삶 속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원망을 중단하세요. 원망을 멈추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참기 어려운 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열매를 바라보세요. 농부는 뙤약볕 밑에서 더위를 참으며 땅을 기경합니다. 희생하며 씨를 뿌립니다. 고통을 견디며 비를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 풍성하게 열릴 귀한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열매를 바라보지 못하면 오래 참지 못합니다.

주위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가 될 것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귀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참지 못하여 절망하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가 될 것을 바라보세요. 귀한 열매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아름다운 결말을 내다보세요. 코비드19 사태로 힘들고 고달파도 주께서 주실 아름다운 결말을 내다보고 오래 참으세요. 자녀가 방황하고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하여 속이 상해도 주께서 내 자녀에게 주실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바라보며 오래 참으세요.

주 안에 있는 나는 어떤 고난이 닥쳐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반드시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나니'(히12:2). 주님은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셨지만 끝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그 분의 말씀을 묵상하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을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동업자들과 서로 원망하고 싸워서 헤어지기 일보 직전입니까?

오래 참음은 단순히 미덕이 아닙니다. 인격 수양도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 고행도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이고 우리가 본받아야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환경과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오래 참음의 대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처럼 참을 수 없는 일을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시103:8).

푸/른/초/장

피종진 목사
(남서울중앙교회 원로)

여호사밧의 승리

역대하 20:1-30

모든 시대를 뛰어넘는 지혜의 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솔로몬은 왕국의 번영으로 수많은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라 하나님 외에 이방신을 섬기는 지도자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 결과 그의 뒤를 이은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러서는 통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는 비극을 맞게 되어 북(北)은 이스라엘, 남(南)은 유다로 각기 나라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삼하7:16)에 근거한 남 유다는 순수한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선민(選民:the chosen people)으로서의 정통성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때 남 유다의 제4대 왕으로 25년간 재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던 여호사밧의 치적, 특히 그 중에 모압 등 4대 연합군의 침공을 대승리로 이끈 여호사밧의 모범된 삶이 기록된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접하는 신불신간의 모든 분들이 내우외환(內憂外患:troubles both at home & abroad)의 격동 속에서도 여호사밧처럼 우리 모두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삶과 이에 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주(主:God)만 바라보고 의지하였습니다(12절).

유다왕 여호사밧은 일대 국난(國難:a national crisis)에 직면하게 되었으니, 이는 제 2차의 종교개혁을 실시한 후임에도 불구하고 모압, 암몬, 마온 및 에돔 족속 등 네 족속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침공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어려운 난관에 처하게 되면 ①일찌감치 포기합니다. 또는 ②주위의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여호사밧에게는 116만이라는 대군이 있었습니다(대하17:13-19). 그러므로 대적할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only Look at the Lord)라고 고백한 것, 이는 곧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는 신실한 신앙고백이요, 특별히 모압 동맹군의 침입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기에(대하19:2)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달은 철저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겸손의 사람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이고 국가적이며 사회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닥쳐오는 크고 작은 모든 위기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위대한 신앙의 힘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요 주관자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습3:17a) 아멘.

2. 하나님의 언약(covenant)을 굳게 믿고 간구하였습니다(3-9절).

여호사밧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며(대하7:6),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왕상22:43), 제사장 및 레위인을 유다 여러 성읍에 파송하여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는 등(대하17:7-9) 여호와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케 하셨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하셨으며(대하17:3-5),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므로 블레셋, 아라비아 사람들이 예물과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대하17:10, 11).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북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투에서 북 이스라엘 아합왕을 도운 것은 악한 자를 도운 것이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대하19:2) 받는 하나님의 징계인 모압 연합군의 침공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그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간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온 유다 백성에게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했으며, 자신은 여호와의 전 뜰에서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완공 후 봉헌예배 시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그 응답의 언약을(대하6:12-42)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사밧의 겸손한 믿음의 기도와, 유다 모든 백성들,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합심된 금식기도를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신 하나님. 예루살렘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사58:6) 아멘.

3.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였습니다(14-23절)

여호사밧왕의 간구와 온 유다 민족의 합심된 금식기도는 지체되지 않고 여호와께서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레위 사람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①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②그들에게로 내려가라 ③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은 이 승리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전진하였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감사 찬송을 부르며 나아갔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시22:3)께서는 약속대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여 완전히 패하게 하셨으니, 이는 암몬과 모압이 세일주민(에돔)들을 쳐 멸하고 모압 동맹군은 스스로의 욕심과 의심으로 분열을 일으켜 서로 치며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사밧의 완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으며,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왕에게 완전 승리를 주신 여호와께서 더불어 주신 축복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였습니다.

①전리품(재물, 의복, 보물)이 너무 많아 사흘 동안 거두어들이는 물질의 축복과 ②온 백성이 즐거워하도록 기쁨의 축복을 주셨고 ③이방 모든 나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함과 동시에 여호사밧과 그 백성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완전한 승리요 하나님의 백성의 넘치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신뢰함으로 전진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축복을 안겨주십니다. 기드온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승리하고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잠21:31) 아멘.

일본의 유명한 평론가요 비전론(非戰論:a pacific) 제창자인 우찌무라간죠는 승리(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스스로 세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여 세상을 이길 것이며, 스스로 의인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여 의인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의지하여 지자(智者:a wise man)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용사가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압 등 네 나라의 연합군의 침공. 그러나 작은 나라 유다의 여호사밧왕은 승리했습니다. 그는

•오직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언약을 믿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간구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믿고 전진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과 같은 신앙의 삶, 기도의 삶, 강하고 담대한 삶으로 영적으로 자칫 해이(解弛:relaxation) 해지기 쉬운 Covid-19. 고난의 시기에, 영적인 방심(放心:absence of mind)은 금물입니다. 부디 최후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담임목사청빙

리마한인연합교회는 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에 세워진 한인연합교회입니다. 본교회는 1989년 12월에 장로교 전통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현재는 독립교회입니다. 25년간 시무하셨던 담임목사의 은퇴로 말미암아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자 격 : 1) 장로교(합동교단 혹은 통합교단)소속의 목사
2) 목사 안수 후 7년 이상의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부목사 포함)
3) 나이: 만 45세 ~ 만 55세(1965년생 ~ 1975년생)
4) 해외 체류 및 비자 획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3개월 이내의 반명함 사진, 가족사진)
2) 자기 소개서 (신앙배경/목회소명/목회경험/신앙고백) 및 가족 소개서
3) 목회계획서 (목회비전/목회철학 포함)
4) 대학교, 신학대학원(M. Div) 학위 증명서 각 1부
5) 목사 안수 증명서
6)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7) 최근 설교 동영상 2회분

마감날짜: 2020년 11월 14일(토)까지

제 출 처 : abcsong47@gmail.com (청빙위원장 송병창 장로)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하며, 서류 심사후 개별 통지합니다.
*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추후 건강진단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페루) 리마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세상회복의 사명

-기본적인 헌신과 충성, 교회와 예배

명확하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명을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이 사명은 성령을 따라 이 땅, 세상을 회복시키라는 말씀이다. 열방을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우는 일이다.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 사명을 주신 배경을 생각하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은 교회와 예배를 사랑하는 이들은 반드시 암송해야 될 말씀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디기에 이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고 사랑하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시의 부제에서 힌트를 얻는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다. 앞선 121편에도 같은 부제가 붙어 있다. 1절 2절을 읽어보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도움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신다. 이 산이 도대체 무슨 산인가? 시온산이다. 시온이라는 말과 예루살렘은 같은 말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1장 8절을 찾아보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지상명령을 언급하는 말씀이다.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된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 엄청난 대 전도와 선교의 사명 앞에 이보다 더 중요한 한 구절말씀을 지나치면 안 된다.

1장 4절의 말씀이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이 등장한다.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 최근에 어떤 분쟁이 있던 그런 지명 자체, 그런 지역적인 예루살렘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저들이 예루살렘 어디를 떠나지 말라는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갔는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다.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다.

왜 떠나지 말라고 말하는가? 성령이 임하기까지, 성령이 임하기까지 떠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침내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했던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삶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었다. 변화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

마가의 다락방이 무엇인가? 이곳에서 그들은 말씀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었다. 오늘날 성령 받고 말씀 받고 삶이 변화되는 곳이 어디인가? 기도원인가? 멋진 치유센터인가? 기도원도 될 수 있고, 수양관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니다. 기본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곳에서 초대 예루살렘교회가 탄생했다. 마가의 다락방, 말씀 받고 성령 받고 인생이 변화를 맞이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다.

마가의 다락방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그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마라, 주의 성전을 떠나지 마라, 그럴 때 너희가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된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상한 신앙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명을 위해 기본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곳이 어디인가? 세상의 어떤 위대한 일들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 받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의 원천지가 어디인가? 하나님의 교회이다.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출발할 때, 세상 앞에 온전한 사명자가 되는 것이다.

먼저 구하고 준비할 것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아멘! 이 아멘이 분명할 때 비로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맛보며 주의 사명 앞에 힘있게 쓰임 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인가? 구제 선교 교육 많은 일들이 주요 사역이지만, 무엇보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도록 교회를 세우셨다. 죄인들을 죄 없으신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만나주시기 위하여 세운 천국을 맛보아 경험하는 천국의 분점 같은 곳이 교회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먼저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먼저 교회를 중심해서 일들을 해야 한다.

그렇게 예배에 성공한 성도, 예배가 회복된 성도, 그래서 성령충만한 성도,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복음전도의 사명을 깨달아 알며, 헌신하며 세상을 변혁케 하는 열매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사명 앞에 순전한 참 성도들을 보면, 저들은 예배와 교회사랑이 회복된 이들임을 보게 된다. 또한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를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실천인 구제와 선교의 일들 앞에 최선의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된다.

예배회복은 사명의 회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어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복음전도의 사명 앞에, 영혼구원의 소원 앞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 앞에,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시는 주의 명령 앞에, 결코 이를 무시하고 살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배가 회복되어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사명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참되고 온전한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세상을 복음과 사랑으로 정복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깨우기 전에

세상을 깨우러 나간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모선(母船)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쪽배를 저어 바다 한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이다. 삶의 회복, 세상의 회복은 그의 영혼의 회복 없이는 구름 같은 이야기이다. 우리 삶의 모선이 어디인가? 칼빈이 어머니라고 말한 교회와 예배이다. 교회와 예배생활이 분명할 때, 신앙생활이 온전하다 말하고, 신앙생활이 온전한 사람이 주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신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견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성경은 읽고 배운다고 말하면서, 꼭 교회에 갈필요가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 속옷차림으로 침대에 편안히 누워 전화기에서 쉽게 찾는 자기 기호에 맞는 설교를 듣는 것으로 예배드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서울의 대형교회 주변의 커피숍에 주일 11시가 되면 성경을 펴두고 '홀로예배족'들이 등장한다고 한다. 봉사와 헌금 등 모든 의무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전에는 기도의 손을 모았는데, 이제는 구글님에게 물어보면 되니, 기도할 이유들도 찾기 어렵다. 교회가지 않아도 해결이 된다는 것이다.

꼭 교회갈 필요가 있는가?

코로나시기에 사람들은 더욱 세게 말한다. '꼭 교회 갈 필요가 있는가?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 모임이 교회 아닌가?' 그런 말들이 교회를 향해가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는 사단의 음성으로 작동한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정신이나 영혼이 홀로 움직일 수가 있는가? 귀신인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몸을 움직여 교회를 향해 나아가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이르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이 예배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장소로서의 교회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다.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육은 교회를 사랑하는 예배자를 훈련하는 도구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형통케 하시고, 예배자를 만나주시며 그를 축복하신다. 열왕기의 역사들이 이를 증거 한다. 시편의 많은 시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왕들의 역사는 참으로 번성했다. 반면, 번성한 나라를 부모에게 물려받아도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를 실패한 이들의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 개인과 가정과 가문도 마찬가지다.

세상을 깨우기 전에 잠든 영혼을 깨워야 한다. 교회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예배에 깨어 있어야 한다. 마음에 참된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 예배로 인해, 영혼육이 깨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한 사랑으로 그 마음을 확정해야 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가 되기 원하는가? 먼저 새벽을 깨워라. 코로나가 가장 잠잠하고 안전할 때가 새벽이 아닌가! 눈만 뜨면 먼저 교회를 향해 나아가야한다. 틈만 나면 교회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교회로 모여야 한다. 그렇게 교회를 중심하여 살아갈 때, 그에게 은혜의 힘과 능력이 공급되고 마침내 세상을 이기는 참된 제자,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이다. 그러한 성도들의 헌신가운데 세상은 변화되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위에 찬란하게 드러날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청교도가 세운 이 위대한 미국이 과거 로마와 같이 허물어져 가는 느낌을 받는데,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철학이나 사상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팔로스 버디스 김형남 장로

A: 좋은 질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17세기 칼빈과 쯔윙글리의 영향을 받은 칼빈주의자인 청교도들이 이 미국에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고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중심 성경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미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미국에 변질된 사상과 철학이 침투해 미국인의 신앙을 좀 벌레처럼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가 계몽주의(Enlightenment,)입니다. 18세기 프랑스와 유럽을 휩쓸었던 이성제일주의의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계몽주의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의 영향을 받았는데,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을 이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성의 빛이 이 무지몽매함과 미신, 종교적 광신, 불합리한 관습이나 전통 같은 어두움으로부터 사람들을 깨어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성의 빛이 비추어져야 무지하고 미성숙한 인간의 모든 것은 계몽될 수 있고 진보가 일어난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으로 이성주의와 합리성과 인간중심의 인본주의를 낳았

계몽주의, 실용주의, 다원주의는 기독교 신앙 무너뜨려

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부인하고 성경도 이성의 눈으로 볼 때 믿기 힘든 초자연성을 지닌 것은 신화와 같으니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받아들일만한 것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합리주의, 이성주의의 영향으로 19세기 독일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하고 미국에까지 불어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근본주의(Fundamentalism)운동이 일어납니다.

둘째는 실용주의(Pragmatism)입니다. 이것은 19C와 20C에 많은 영향을 받아 미국인들에게 삶 깊은 데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생활사조인데 유용성(usefulness)에 의해 결정하는 점에서 공리주의입니다. 이 사상은 진리는 경험에 의해서 검증되고 변화한다고 보는 경험주의입니다. 이것은 존 듀이의 교육철학에 의해 더 확장이 되는데, 한마디로 인간의 경험이란 실험실에서 '이렇게 해보니 좋더라, 그러면 그것이 결국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사람들이 흔히 쓰는 "That's good"하는 것은 실용주의적 개념에서 좋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좋다고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보니 경험적으로 좋더라' 하면 그게 내게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결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혼도 많은데 젊은이들이 먼저 함께 동거하며 살아보고 그 후에도 좋으면 그 때 결혼해도 늦지 않다는 유용성을 바탕으로 한 생활철학입니다. 이것은 성경보다 경험과 실용성을 강조하기에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이 실용주의 철학이 오늘날 미국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만연합니다. 아주 위험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셋째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다원주의(Pluralism)인데 이것은 절대권위를 부정하고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로 여겨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한국 남산을 등산하여 올라가는데 여러 길이 있듯이 구원의 길도 기독교에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불교, 이슬람, 샤마니즘에도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상을 낳았습니다. 예수의 유일성을 강조하면 그것은 배타주의라고 여깁니다. 이것은 WCC운동을 받아들입니다. WCC운동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을 부정합니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네팔의 손하(SONHA)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을 거점으로 한 작고 산이 많은 왕국이다. 남쪽으로는 인도와 북쪽으로는 티벳을 사이에 끼고 있는 네팔은 수많은 언어와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는 약 110개의 다른 인종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이다.

1960년대 이후로 네팔에서는 여행 산업이 중요하게 됐다. 수도 카트만두는 인디아에 육로와 항공편으로 연결돼 있고, 수많은 그림 같은 사원들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인다.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 하이커들과 등산객들은 중반과 고지대의 히말라야의 하이킹 여행뿐 아니라 에베레스트산 탐험을 위한 근거지로서 카트만두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네팔은 험한 지형 때문에 주요한 교통장애에 직면하고 있다.

13,000개의 손하는 카날리, 브헤리, 마하칼리 강을 따라서 서쪽 네팔의 산맥에 위치하고 있다. 이 손하들은 당 따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언어는 손하어와 인도 아리언을 쓴다.

삶의 모습

네팔은 완전한 농경국가로서 인구의 90% 이상이 생계수단으로 농사에 의존한다. 서부지방 네팔의 산간농경은 규모가 아주 작고 매우 세분화돼있다. 주 재배 작물은 옥수수, 기장, 보리, 감자와 무우다. 과일나무를 함께 재배하는 농업이 전 지역에 걸쳐서 흩어져있으며 종종 말을 기르고 고지대에서는 야크(털이 긴 소)를 기른다. 또한 금, 구리, 납연, 철 광산들이 서부지방에 있다. 손하의 많은 사람들이 광산의 산맥 줄기에서 금을 판다.

엄격한 카이스트제도를 포함한 많은 힌두의 제도들은 네팔사회에 다양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 결과로 종족집단에서 네팔문화는 주로 힌두중심적이다. "카이스트"란 단어는 원래 품종, 인종, 종류를 의미한다. 손하 사회는 위계적인 계층들로 분류돼있는데 이것은 주로 동족결혼이다. 계층제도에 있어서 계층들을 정확히 배치했다고 해서 손하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진 것은 아니다. 즉 그 계층들의 특별한 생활양식은 적절하게 묘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계층들은 따로 종족에 관련돼있다고 믿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몽골의 후손일지도 모른다. 손하와 그들의 필요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신앙

손하의 대다수는 살아있는 것들과 그렇지 않는 것들이 영혼이나 정신을 갖고 있다고 믿는 물활론적인 신앙이다. 그렇지만 어떤 형태의 힌두이즘 숭배 비율이 대략 20%다. 종종 "이교도"라 불려지는 물활론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죽음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고 그 영들이 사물과 자연의 모습들에 살아있다는 믿음을 받아들인다. 대부분의 물활론적인 문화에서 사람들은 자연의 영혼과 죽은 조상들의 영혼을 싫어하는 두려움 속에서 산다. 죽음은 가장 중요한 사건중의 하나고 그 죽음을 다루는 종교적인 의식도 다르다. 주로 "샤만" 혹은 지방의 사제라고 명명되어지는 누군가가 그 지방의 신들을 기쁘게 하거나 혹은 그 마을에 있는 문제들에 관한 영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의식을 거행한다.

손하의 많은 숫자들이 기본적인 힌두의 관습과 전통을 따르고 있다. 힌두의 대다수는 절대적인 존재를 믿고 있다. 어떤 이들은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식물만 먹는 반면, 어떤 이들은 사원에서의 제물들로 바쳐진 고기를 기꺼이 먹으려 한다. 서구에서의 널리 알려진 믿음과 반대로, 힌두교는 쉽게 묘사될 수 있는 어떤 오래되고 고정된 신앙이 아니다. 그 대신에 몇백년에 걸쳐서 주요변화를 거쳐 온 관습, 관행, 믿음의 본체다. 환생에 대한 믿음은 힌두교의 몇 안되는 지속적인 특징 중의 하나다.

필요로 하는 것들

손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자나 절대적인 신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의 약 90%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믿는 자들로 알려졌다.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고 선교단체도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 복음주의 교회들, 코로나19에도 재정전망은 '낙관'

코로나19 사태에도 미국의 대다수 복음주의 교회와 기독교 비영리단체가 향후 재정에 대해 낙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복음주의 재정책임위원회(Evangelical Council for Financial Accountability, ECFA)는 지난 6월 1,341개 교회와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과 2020년 재정 상황에 관해 설문을 진행한 보고서 'Optimism Outweighs Uncertainty: COVID-19 Financial Impact Report for Churches and Other Nonprofits'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7일까지, 5월 12일부터 5월 27일까지 684개 교회와 657개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CFA 연구팀의 워렌 버드(Warren Bird) 부책임자는 "이번 설문은 복음주의 교회와 기독교 비영린 단체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면서 "놀랍게도 지난 1월 보고된 낙관주의가 이미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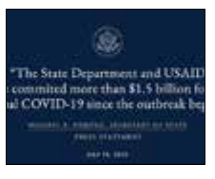
그는 "특히 여름 캠프, 학교, 단기 선교사 및 단기 여행, 대규모 대면 집회와 관련된 기타 사역에는 아직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 놓여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답변은 현재까지 전염병의 영향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5월부터 7월까지 현금 기부 전망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한 단체의 절반 이상(58%)이 낙관적이라고, 27%는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15%는 비관적이라고 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와 비교하면, 약 47%의 교회가 최근 헌금액이 이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25%는 거의 같다고 했다. 약 28%는 20%에서 40%까지 감소했다고 전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교회와 단체(59%)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당시, 예산 천만 달러 이상인 교회의 8%만이, 50만 달러 미만인 교회는 33%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바다주, 수개월 만에 '예배제재' 완화



네바다 주가 카지노보다 교회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지 수 개월 만에 현장예배 규제를 완화했다.

지난달 30일 스티브 시솔락 네바다주지사가 발표한 새 지침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대면모임 제한이 50명에서 250명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건물 수용면적의 50%로 확대될 방침이다.

시솔락 주지사는 성명에서 "이는 더 많은 네바다인들이 우리의 신앙 기반 공동체들을 포함한 사회적 모임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네바다가 경제 재개와 회복의 길을 계속 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지침은 집회주최 측에 6피트 사회적 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 건강상태 점검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서 9월 29일 발표된 주 정책 보고서는 "종교에 기반을 둔 건물, 홀, 행사장 대여 공간, 야외 행사장을 포함한 야외나 실내에서 (모임이) 개최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반면 네바다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교회들의 변호를 맡은 '자유수호연맹'(ADF)은 여전히 새 지침에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코트먼 ADF 소송 담당 부사장은 성명에서 "250명인 교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한선(hard cap)이 존재한다. 그러나 카지노 고객들은 교회에 부과되는 상한선 없이 여전히 도박장의 50% 수용력 안에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코트먼은 이어 "헌법에 도박에 대한 권리는 없지만, 신앙을 가진 미국인을 보호하는 헌법적 권리는 있다"면서 "헌법에 맞게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기독서점 주인에 징역 7년 선고

중국 기독교 온라인 서점 주인이 '불법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는 일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3만 달러를 선고받았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세계기독연대'(ICC)는 2019년 9월 저장성 타이저우시에서 온라인 서점을 운영하던 첸 유(Chen Yu) 씨가 대만과 미국 등지에서 수입된 '미승인 종교 출판물'을 판매한 혐의로 구금됐다고 밝혔다.

ICC의 프랜시스 류 신부가 공개한 린하이시 인민 법원 문서에 따르면, 첸유는 지난 주 징역 7년과 벌금 20만 인민폐(미화 2만9,450달러)를 선고받았다. 문서는 또 그가 운영하던 서점에 있는 12,864권의 기독교 서적들은 린하이시 공안국에 의해 파괴되고 그의 아이폰은 압수당할 것이라고 고지했다.

ICC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판매기록을 입수해 서점 고객을 추적하기 위한 전국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이 구입한 도서는 압수할 예정이다.

지나 고흐 ICC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종교적인 모든 것에 대해 점점 더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종교적 상징인 '덕담을 적은 빨간 종이(Chinese couplets)'부터 기독교 서적까지, 종교적인 요소가 담긴 모든 것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흐 국장은 첸 유와 같은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른비언약교회의 왕 이(Wang Yi) 목사와 같은 '기독교인에 대한 불평등 선고'는 중국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탄압을 예고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 중국 내 기독교의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기독교 서적 판매업자와 고객들에 대한 단속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작년에는 '휘트 서점' 주인인 장샤오마이(Zhang Xiaomai)가 '불법 사업 활동' 혐의로 구속됐다. 중국 정부가 발행한 문서에는 그녀가 해외에서 구입한 종교 서적물을 불법으로 판매했다고 보고됐다.

이 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혐의로 소환된, 광둥성 신전시의 한 교회 목사는 "기독교 서적을 사는 사람들은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이 정권의 안정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들을 조사한다"고 비터윈터(Bitter Winter)에 밝혔다.

산둥 출신의 한 가정교회 전도사도 비터윈터에 "내가 중국 온라인쇼핑 사이트인 타오바오에서 종교 자료를 구입한 사실을 경찰이 알고 수사를 벌였다"고 진술했다.

2018년 4월 중국 정부는 온라인 소매점들의 성경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중국에서 성경은 기독교 교회를 감독하는 정부 승인 기관에 의해서만 배포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올 상반기에만 전국의 국영 교회에서 900개 이상의 십자가를 철거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진을 마오쩌둥과 시진핑 주석의 사진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6.25참전 美 목회자들의 이야기

미국 뱁티스트프레스(BP)는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국전쟁을 기념하며, 당시 참전했던 남침례교 목회자들의 사연들을 모아 최근 게재했다.

파울러 목사(Charles Fowler)는 1949년에 미 공군에 입대해 이듬해 한국전쟁에 투입됐다. 당시 10대 후반이었던 그는 북한군이 남한을 침공해 거의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 외에는 전쟁의 원인도 알지 못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우리 정부는 나를 그곳에 보냈고, 지금이라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는 내 조국에 복종할 것"이라며 "나는 비록 88세지만, 만약 지시가 내려온다면 지금이라도 무기를 들고 복무할 것"이라고 고백했다.

BP는 올해 9월을 한국 전쟁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였던 미국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인천에 상륙하고(15일), 서울을 재탈환(26일)한 사건이 있은 지 70주년이 되는 특별한 달로 소개했다. BP는 당시 주위에서는 인천을 장악하려는 맥아더의 시도를 무모하다고 여겼으나, 그는 이 논쟁에서 승리했고 결국 인천을 확보해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에 따르면 당시 한국에는185명의 미군 목사가 있었으며, 그 중 40%에 해당하는 72명이 남침례교 신자였고, 그 가운데는 9월 21일 인천에서 8명의 군인에게 세례를 준 크레이븐(John H. Craven) 목사도 있었다고 전했다.

미 육군 퇴역 군인이며 북미선교위원회 총무인 더그 카버(Doug Carver)는 "전투에서 목사의 주된 역할은 전쟁의 혼돈 속에서도 그들의 군대와 함께한다는 의미인 '참석(presence)'의 사역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2018년 10월 타계한 또 다른 남침례교 목사인 파커 톰슨(Parker Thompson)은 한국전쟁에서 칠흑 같이 검은 지뢰밭에서 죽거나 부상당한 병사들을 옮기는 일을 자원했다.

남침례교 해군 군종인 호머 슈닉(Homer L. Schnick)은 1953년 휴전 직전에 치열했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군인에게 물을 먹였던 기억을 글로 남겼었다. 그 군인은 부상을 입은 채로 공산주의자들에게 진흙탕으로 끌려가다가 구출됐다.

한국계 미국인이자 북미선교이사회(NAMB) 감독인 사무엘 리(Samuel Lee) 목사는 이 전쟁이 한국에 끼친 영향은 물질적·경제적 피해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리 목사는 "한국전쟁은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서구와 팽창하던 공산주의 간의 불가피한 충돌이었다"면서 그러나 "당시 공산주의의 확장을 볼 때, 영적인 측면과 어떻게 기독교가 공산주의 아래에서 박해받았는지는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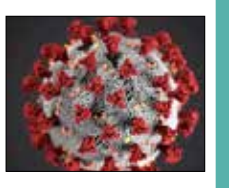
리 목사는 한국전에 대해 "너무나 많은 북한 기독교인들이 6.25전쟁 직전과 직후에 남한으로 왔다. 하나님은 한국에서 기독교의 부흥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해 기독교인과 그들의 기도, 그리고 신앙을 사용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쟁 동안에 미국은 큰 대가를 치렀다"며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특히 한국 정부를 지원한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 미국에 매우 감사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식적인 집계에 따르면, 한국 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은 -13명의 목사를 포함한-3만7천명이지만 실종자 수를 감안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많다.

뱁티스트 프레스는 현재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며, 세계 12대 경제대국이 된 남한에 비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제한적인 경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 남한이 미국에 이어 선교사 파송 국가로 세계2위인 데 반해, 북한은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평가받는다고 덧붙였다.

WHO "세계인구 10% 이미 코로나 감염"



전 세계 인구의 10%가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추정이 나왔다.

5일 AP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처장은 이날 WHO 이사회 코로나19 회의에서 "현재까지 세계 인구의 약 10%가 코로나19에 걸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에서 교외 지역까지 다양한 그룹마다 구체적인 수치는 다를 수 있다"면서도 "이 같은 수치는 세계의 대다수는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WHO의 추정이 사실이라면 약 76억명의 세계 인구 중 7억6000만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집계한 현 기준 전 세계 확진자 수(약 3500만명)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AP통신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실제 환자 수보다 크게 낮을 수 있다고 오랫동안 지적해왔다"고 전했다.

해저에 미세플라스틱 쓰레기 1400만…

지구의 바다 밑바닥에 최소 1400만t 가량의 미세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여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바다 표면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30배가 넘는 양으로 추정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호주 정부 과학기관인 CSIRO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5일 보도했다.

CSIRO는 최근 호주 남부 해안에서 약 300㎞ 떨어진 6곳에서 해저의 해양 퇴적물 표본 51개를 채취, 조사한 결과 1g당 평균 1.26개의 플라스틱 조각을 발견했다. 3㎞ 깊이의 해저에서 수집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면적이 5㎜ 이하인 미세플라스틱으로 관찰됐다. 미세플라스틱은 대부분 플라스틱 폐기물이 잘게 부서지면서 생긴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플라스틱이 언제부터 쌓여있었는지는 알기 어려웠으나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소비재의 일부였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1400만t이라는 수치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지만, 매년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사실상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6년 한 해동안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이 약 1900만~2300만t 규모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해저에 쌓여있던 미세플라스틱은 바다가 플라스틱을 분해하고 남은 조각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해저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무게가 해수면을 떠다닐 때의 무게보다 34배~57배 무거워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우리의 소비 습관은 지구상의 가장 깨끗한 장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거대하고 푸른 바다가 거대한 쓰레기통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07. 김형식(1895-1982)

김형식은 1895년 12월 24일 경기도 삭녕에서 출생했다. 1911년에 송도 한영학교를 졸업한 후 평양 숭실중학과 서울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1920년 3월에 일본 고베의 명문 칸사이 학원 신학과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하였다.

김형식은 학업을 하는 틈틈이 전도사역에 종사하여 1914년에 전도사 직첩을 받았고, 칸사이 학원 신학부를 졸업한 지 2개월이 되던 1920년 5월부터 춘천지방 양양구역에서 전도사로 시무하다가 9월 연회에서 오지 C. 밍글도르프(민걸도) 선교사와 함께 춘천구역으로 파송 받았다. 그가 춘천교회 전도사로 시무할 때 설교한 '봉사의 정신'에서 그의 목회관을 읽는다: "이 복잡한 세계에서 평화를 담보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신 봉사의 정신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하는 신자는 단체와 사회와 세계에 그리스도를 제공해야 한다."

철원에서 목회하던 김형식은 1922년에 도미한다. 1925년 켄터키주 오웬스보로에 있는 켄터키 웨스레이안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그해 10월에 테네시주 내쉬빌에 있는 스카릿 대학에 입학하고 "가정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62쪽의 논문을 제출하고 1927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귀국하여 서울에서 감리교 목사로 목회하였다.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1934년 6월 1일에 김형식이 그의 부인과 3남매를 데리고 호놀룰루에 도착했고, 그달에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에 부임했다. 부임 후 첫 교회 행사는 이승만 부부의 환영식이었다. 1935년 1월 24일, 이승만이 아내 프란체스카 도너와 함께 하와이에 도착했고, 이튿날 약 900명의 동포가 그들을 위한 성대한 환영식을 마련했다. 이후 한인 기독학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이승만은 교장직을, 그의 부인은 사감직을 맡았다.

김형식 목사

김형식의 두 번째 사역은 교회당 건축이었다. 이승만의 귀국으로 건축 모금은 탄력을 받아 특별건축기금 위원으로 양유찬과 호놀룰루 센트럴유니온교회 부목사 J. 레슬리 던스탄을, 공동이사로 체스터 리빙스톤과 김윤배를 선정하고 미국인 친지에게까지 모금을 확대했고, 외국인이 기부한 금액만 총 7,600달러였다. 1936년 3월에 릴리하 스트리트에 위치한 1.4에이커인 약 1,800평의 기지를 하와이 천주교단으로부터 구매했다.

1927년 석사학위 취득 후 귀국, 1934년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부임
경제공황 중 성전건축, 1945년 나성한인기독교회 설립 담임목사 사역

1936년 교회 직원으로 이종관 목사가 퇴역(은퇴) 목사였고, 전도사에 조석진, 집사에 이재연과 차신호, 그리고 여집사에 윤세라, 안득은과 안숙자가 있었다. 청년 면려회 회장에 남월터, 소년 면려회 회장에 김해리였다. 그리고 재무부에 여러 직원이 있었는데 부장에 손창희, 서기에 문인화, 회계에 박주범 그리고 위원에 황원태, 최H.E. 심제임스, 공영복, 공C.S., 그리고 박N.S.였다. 그해 10월에는 10시 30분 영어예배와 11시 15분 한어예배 등 두 번의 오전예배가 있었는데 이승만이 영어예배에서, 김형식은 한어 예배에서 설교했다. 주일 저녁예배는 7시 30분에 있었고, 대부분 노인이 참석했다. 수요일 저녁예배는 7시 30분에 있었다. 성가대 지휘자는 남패니였는데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연습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있었다. 그 외 집회로는 청년면려회가 저녁 6시 30분에 모여 '삶을 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했다. 유년군(Boy Scout Troop)이 있었다. 유년군 19는 유일한 한인 보이스카웃으로 김학성의 지도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 예배당에서 모였다. 1919년에 조직되었다가 1935년에 폐단했는데 1936년에 다시 조직하였다. 교회창립 18주년 기념행사가 1936년 12월 20일에 있었다. 교회 마당에 1,0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텐트를 친 가운데 300여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의 성탄 캐럴 합창과 19 유년군의 묘기 등이 있었고, 그날 점심은 부인보조회가 준비했다.

1937년 새해를 맞아 몇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었다. 교회가 운영하는 신흥 국어학교는 그해 6월에 1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이 졸업식에서 장기대회도 있었다.

같은 달 교인들이 리리하 스트리트의 새 교회부지의 잡초를 제거했고, 10월 3일 개천절에 시티 밀 건축회사가 김찬제가 사진을 보고 설계한 대로 6개월 동안 종탑이나 십자가 대신 광화문 문루를 세운 서양식 건물을 건축했다. 건축위원장 양유찬과 건축 수전위원 김국경에게 박수를 칠만 했다. 1938년 4월 24일에 예배당 봉헌식이 있었다. 미국인 친지가 13,245달러를 헌금했고, 한인 교인들과 한인 친지가 17,577달러를 헌금하였는데 총건축비는 약 41,000달러였다. 세계적인 경제공황임에도 교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성전건축을 완성하였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다. 봉헌식 순서지에서 당시 교회의 형편을 엿볼 수 있다. 주일학교 교장은 이매리였고, 찬양대 지휘자 남패니가 약 50명의 찬양대를 이끌었고, 풍금 주악인은 이대시였다. 15명의 교사가 200명 이상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다. 소년 찬양대와 부인 보조회, 청년 면려회, 소년 면려회, 상애 보조회, 걸스카웃 등의 단체가 있었다. 그리고 신흥국어학교는 교장에 김영기였으며 9명의 교사가 225명을 가르쳤고, 카이무키 국어학교에는 교사 1명이 30명의 학생을 지도했다.

1938년 4월 24일에 새 교회당 헌당식을 마치고 이어서 29일까지 연회가 있었다. 김형식은 한인 선교부 이사원의 서기였다. 당시 보고된 호항 한인기독교회 교세는 어른 세례교인이 455명이었으며, 유아 세례자가 480명, 주일학교 학생이 250명이었다. 그리고 두 개의 국어학교에 등록한 학생이 50명이었고, 지난 1년 경비가 1,956달러 28센트였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장에 이메리였다. 매해 두 번 야외예배가 있었는데 1938년 9월 야외예배는 와이키키 공원에서 있었다. 그리고 와히아와 교회와 합동 야외예배가 매년 1번 있었는데 할레이바 해변 공원에서 있었다.

1939년 교회 직원은 담임목사 김형식 이외에도 안현경과 정운서가 전도사로 시무했다. 그리고 부사에 차신호와 김학성, 탁사에 이원순, 양유찬, 강영복, 이재연, 재무에 문인화, 황원태, 박주범, 집사에 백인숙, 조매륜, 윤세하, 안숙자, 심영신 그리고 안득은이었다. 주일학교 학감에 이메리와 이동빈이었으며, 기독학원 홈장에 이매리였고, 신흥국어학교 교장에 김영기였다. 이해 김형식은 이종관, 문인화, 백인숙 그리고 김유실과 더불어 한인선교부 연회에 참석했다. 이 연회에서 그는 박동완과 장 붕과 더불어 한인 선교부 장정 수정위원으로 선임되었고, 1년 임기의 이사로 선출되었다.

1939년 1월 한인상조회 운영이 난관에 부딪혀 교회가 한인양로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손노디가 홈장이 되어 10년간 수고했다. 매해 회원수가 감소하였지만, 회원들이 매달 25센트를 내고 이 금액으로 회원이 사망하면 장례를 치렀다. 그해 부활절에 김형식이 오상호와 권성재 등 성인 두 명과 박해리 등 아동 22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해 5월에는 신흥국어학교 정원에서 유년군 설립기념식이 있었다. 그해 교회 재정은 9,800달러였다. 7,000달러 이상의 건축 빚을 갚기 위해 상애 보조회 회원들이 경품권을 팔아 1,000여 달러의 기금을 모았고, 부인회는 1939년 7월에 신흥국어학교에서 연극과 박마타 양의 무용공연으로 기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그해 9월에는 한인 선교부를 대표하여 김형식이 하와이 섬, 마우이 섬, 라나이 섬, 몰로카이 섬을 심방하고 동포를 돌아보았다. 심방을 받은 동포들이 호항 총교회에서 부채로 인하여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호항교회 건축기금으로 총 668달러 75센트를 헌금했다. 2개월 후 11월에 한인기독교회, 기독학원, 동지회 등 세 단체 고문부가 조직되었다. 이듬해 1월에 하와이 재무국에 등록된 서류에 따르면 한인 선교부 대표로 김형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는 서기였다. 그 외에 회장 이승만, 재무 이원순 그리고 손노디, 황원태, 강영B, 최중대가 있었다.

1940년 교회 직원에는 휴직 목사로 이종관과 김이제가 있었고, 전도사로 손승운과 안득은이 있었다. 기타 직원으로는 주일학교와 영어예배 교장에 이동빈 목사, 부사에 김학성과 김노디, 탁사에 이원순, 강영복, 양유찬, 이재연과 문인화, 재무에 최성대, 박주범과 손승운, 집사에 안숙자, 안득은, 윤세라, 백인숙, 심영신, 조매륜, 전영족, 김유실, 이복수, 민함나, 정순이, 이영옥, 양로원장에 김노디, 국어학교 교장에 김영기, 부인 보조회 회장에 조매륜, 상애보조회 회장에 송메리였다. 그리고 평신도회 회장에 김광재, 본 회 서기에 김유실이었다. 김형식은 1940년 한인 선교부 연회에 이원순, 손승운, 김유섭, 민함나와 함께 참석했다. 그는 이 연회에서 제1 부이사장으로 선임됐다.

호항 한인기독교회

그런데 1940년 1월에 김형식이 사임서를 제출했고, 후임목사가 오던 그해 6월 5일에 사임하였다. 아래의 1940년 통계를 통해 그의 마지막 목회 현황을 엿볼 수 있다. 임원이 26명, 신도가 918명, 주일학교 학생이 215명, 청년 면려회 회원이 70명, 소년 면려회 회원이 30명, 영어예배 참석자가 70명, 소년군이 60명, 국어학교 학생이 140명, 유아 세례자가 38명, 소천하신 분이 8명, 양로원 거주자가 16명이었다. 그리고 지난 1년 재정이 9,492달러였고, 토지와 건물 싯가가 63,500달러였으며, 교회 부채가 6,690달러였다. 김형식은 1940년에 미국 남가주 나성으로 이주함으로써 그의 사역은 7년간이었다.

나성 한인기독교회

1940년에 나성으로 이주한 김형식은 김중수 목사가 목회하는 대한인기독교회에 출석했다. 그런데 그가 출석한 지 3년이 되던 1943년에 위의 교회에 내분이 일어나 교인 중 일부가 동지회 사무실에서 '한인기독교회'를 창립했고, 2년 뒤인 1945년에 1142 36th 스트릿트에 있는 주택을 빌려 예배를 드렸는데 1947년 12월에 본 교회가 '나성 한인기독교회' 창립 선포문을 발표하고, 김형식이 본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고 백란관, 백인명, 송 철 등 3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1968년 한인기독교회 연회록에 따르면 본 교회는 나성교회 기지를 방매한 값에 유지들의 특연을 받아 10만 달러 예산으로 이승만 박사 기념교회 건물을 신축할 작정이라고 김형식이 보고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하와이에서도 모금했다.

은퇴한 김형식은 1982년 4월 28일에 향년 87세로 미국 남가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damien.sohn@gmail.com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소그룹모임: 오전 12:40
새 벽 기 도 회: 오전 5:3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 도 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pcofny.org, Tel.(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45
3부 오후 1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새벽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사랑의동산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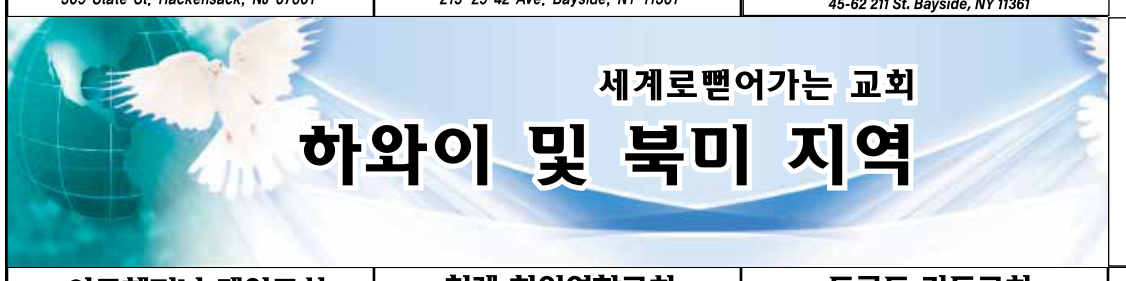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www.kap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Tel.(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24)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의 "목사의 소명 II" (4)

청교도 설교의 기본공식인 본문과 교리와 적용의 설교스타일 최초 공식화
개인과 경건지향적 적용패턴 버리고 다차원적 적합 범주 계승 발전시켜야

나가면서

퍼킨스의 '설교의 기술'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16·17세기 주의 몸 된 교회의 신실한 종이었던 퍼킨스의 설교론은 오늘 21세기 현대교회에게 귀한 교훈과 경종을 준다. 그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이며, 또한 그 말씀의 강한 적용이다.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교회의 타락은 설교의 타락에서 출발한다. 청교도주의를 부흥운동 각성운동 설교운동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은 근저에 성경운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교도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설교를 잊지 않았다. 퍼킨스의 설교론은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현대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게 된 것 중의 하나는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설교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목사들과 교회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청교도의 설교론에서 강점은 적용인데, 이 점에서 설교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현대교회의 설교의 약점은 적용이 약한데, 퍼킨스의 설교적용은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분석적이다. 대각성운동의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즈도 강한 적용을 잊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설교자들이 겸손함으로 배울 수 있다.

설교자들은 청교도들이 말하는 설교가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순전한 복음전파, 성령의 사역으로서의 설교, 경건한 목사의 삶, 구체적 설교의 적용, 설교자를 기꺼이 돕는 천사를 기억한다면 오늘의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 시대를 꼽으라면 청교도 시대를 들 수 있고, 교회사에서 가장 강력한 설교자 집단을 말하라면 청교도 설교자들을 언급할 수 있다. 이런 청교도식 설교가 17세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씨앗은 바로 윌리엄 퍼킨스의 설교학 고전이었다. 성경적인 설교에 정통한 청교도 설교의 기본 공식인 본문과 교리와 적용의 설교 스타일을 최초로 공식화한 것이 바로 퍼킨스의 책이었기에, 이는 그 이후 전개된 위대한 청교도 설교자들을 만들어내는 설교학의 모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오늘날에도 매우 가치 있는 설교 지침들을 담고 있다. 최신의 설교이론서들이 인위적인 원리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반면에, 이 책은 성경의 핵심적인 원리들만을 전하고 있고, 모든 진술을 성경 본문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 그가 고유한 방식으로 진술하는 이 영적 흐름을 충실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가장 진귀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박태현 교수가 평가하듯이 설교자들은 퍼킨스의 적용 공식(딤후3:16)을 다시 세우며, 적용의 구체성보다 변혁을 위한 적용의 통전성을 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청교도와 퍼킨스의 전통은 개인과 경건지향적 적용 패턴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다차원적인 적합한 범주를 현대교회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개혁주의 청교도의 경건과 함께 각 개인의 '선한 양심을 향한 적용'을 선포할 때 사회 속에서 잃어버린 윤리와 신뢰를 회복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적용과 함께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교회와 사회 가운데 세워나가기 위한 '공동체적 적용'을 펼쳐 나가야 한다. 다음 세대를 급속히 잃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포스트모던 다음 세대를 향한 개혁주의 적용 패러다임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성경적 변혁을 향한 목회적, 개혁신학적, 종말론적인 본질에 기초한 설교적용(예언자적 적용, prophesying application)이 교회에 절실히 필요하다. 무너져가는 가정, 교회, 지역사회, 직장, 다음세대와 문화, 경제, 정치, 종교, 민족과 세계 등의 영역을 향한 말씀의 적용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삶으로 고백하는 변혁이 지속되어야 한다. 설교자와 지도자들은 성경적 설교와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한 거룩한 상상력을 활용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적용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과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긴급함을 심장에 품고 청중들과 다음 세대의 지성, 감성, 의지에 모두 호소하는 전인적인 설득과 변혁을 추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준비시키는"(딤후3:17)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한 적용을 설교자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 오직 십자가와 성령이라는 예리한 적용의 양날 검으로 자신이 먼저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설교자의 '자아변혁'이 부흥의 징검다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교회변혁'과 '사회변혁'으로 불이 번져가야 한다.

제임스 패커가 언급하듯, 청교도 설교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성의 수위성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며, 설교의 절대적 중요성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며, 성경의 생명을 주는 능력에 대한 확신도 필요하되, 무엇보다 성령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그가 말하는 청교도 설교의 특성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점검해보자. 우리는 과연 설교 방법에서 성경적(개혁주의적) 해석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설교 내용에는 신학적(교리적) 뼈대가 분명한가? 또한 우리의 설교 배열은 청중을 설득할 수 있는 배열성과 규칙성이 있는가? 우리의 설교 형식은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대중성이 있는가? 무엇보다 설교 방향에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또한 우리의 설교는 경험적이며 적용에 있어서 분명한 예리함이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전달에 성경의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청교도 설교가들과 퍼킨스가 우리에게 남기려고 했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퍼킨스의 '목사의 설교'와 '목사의 소명'에 대한 도전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4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강력한 도전을 불러일으키며, 말씀의 적용에 대한 탁월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주신 큰 선물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에 필자는 모든 신학도들과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또 다시 읽을 필요를 강력하게 제시하며 추천한다.

younsuklee@hotmail.com

한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LA비전교회 협력)

성급한 만남

질문)부부가 쳇바퀴 돌듯 주 6일 아침저녁으로 뛰어야 하는 조그만 사업처를 운영하던 중 아내는 새로운 삶으로의 해방을 꿈꿨었는지 어느 날 집을 비우고야 말았습니다. 그 때 저는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 후 한 여인을 만났을 때 내 모든 고통은 드디어 끝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한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서두른 만남이었던지 결국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홀로 살 자신은 전혀 없습니다.

재혼실패율 85%...바람직한 만남의 시기, 방법, 홀로서기...

답)지나간 결혼생활 중에 행복을 느낀 적이 별로 없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고립, 경제적 고달픔, 쉽지 않은 자녀양육, 혹은 이성에 대한 미련 등의 이유로 새로운 만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낮아진 자존감에서 여성의 경우, 자신의 미적 매력의 확인을 위해 남성의 경우, 자신의 능력 확인을 위해 이성관계를 추구할 수 있겠습니다. 재혼의 실패율이 85%라는 일반적 통계를 염두에 두면서 성공적 재혼에 이르는 오르막길에 대해 알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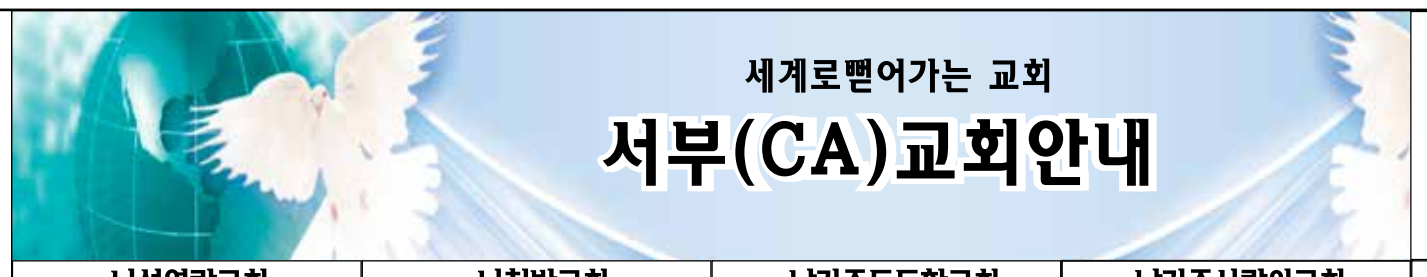
우선 바람직한 만남의 시기, 방법에 대해 나눈 후 홀로서기에 대한 것을 말하려 합니다. 데이트의 적합한 시기는 첫째, 혼자 자립하는 법을 터득하여 성실하게 살고 있고, 자신의 결점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고 한 발 나아가 현재 상황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숫자상으로 볼 때 결혼생활 햇수를 대략 4로 나눈 수 즉 결혼생활이 12년이었을 경우 3년이 지난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성공적 만남의 여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인데, 토니 에번스 목사의 말대로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찾아주실 것'을 믿으며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쌓는 것입니다. 초혼이 일대일로 만나는 것이라면 재혼은 지난 결혼에서 있었던 자녀, 전 배우자, 그 가족 등 여러 사람과 연결이 되는, 그룹과 그룹의 만남이 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기도를 쌓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적합자라고 느끼는 상대를 찾았을 경우 주위에 신뢰할 만한 분의 의견을 참조해야 합니다. 사람에겐 익숙함에 끌리는 성향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상대가 실패한 전 배우자와 비슷한 성품이 아닌 지 고려하면서 이혼 회복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을 주시해본다면 실패의 확률을 줄일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바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만남이 시작된 후 첫째,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가? 둘째, 나에 대한 자존감이 올라가고 있는가? 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아니라는 답이 나온다면 자신을 보호하면서 일정기간만이라도 홀로서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전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고 있어 화해의 가능성이 있을 때, 다른 상대와의 교제조차도 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결합 역시도 성공률이 낮은 만큼 헤어진 배우자가 원하더라도 진실로 뉘우쳤는지 변화된 마음을 보이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지켜본 후 결정함으로써 상처를 더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전배우자가 재혼을 했음에도 되돌이켜 재결합하려 할 경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말 2:16) 또 한번의 이혼을 만들기 때문에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으로 '제2의 순결'이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자유분방한 문화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경계선을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 존중하는 의미에서 부부생활로 들어가기 전에 간결하게라도 식을 올리고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6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여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 일 학 교: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Tel.(562)691-0691, Fax.(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은 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머무는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모임: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주일예배 장소)
Office: 106 S Hobart Bl, Los Angeles, CA 90004 (수요모임장소)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 오후 7:30
Tel.(213)381-2202, www.mpcl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11:3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Tel.(323)737-3009, Cell.(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 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10시-오후4시30분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크 사역
http://www.elpisfamily.org/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714)446-6200, www.grace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 M 예 배 : 오전9:45(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 요 예 배 :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핌(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 이훈우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
2533 Honoulul Ave # 4 Montrose, CA 9102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덕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모임: "어성경이 읽어지네"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최후의 승리자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독일의 시인 에리히 케스터너가 쓴 "마주보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너와 내가 마주봅니다. 참된 인생은 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서는 것입니다.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고 사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혼자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외롭고 고독합니다. 마주보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사랑하고 나누며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입니다."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이요, 혼자 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는 말이 "조화롭다"에서 나왔고 "나쁘다"는 말은 "나뿐이다"란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조화로운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은 이것을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사는 땅에 기근이 오자 그랄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해에 백배의 복을 주셨고 왕성하고 창대하였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샘을 팠는데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와서 샘을 빼앗았습니다. 그 귀한 샘을 얻었음에도 그랄 사람들이 와서 뺏으니까 싸우지 않고 그냥 내어준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하다면 베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준 이삭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는 하는 일마다 잘되었습니다. 샘을 파면 파는 대로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10개 파면 1개 나올까 말까 하는 박토에 파는 대로 샘물이 터져 나왔으니 그랄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빼앗으러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힘이 없어 양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사병들이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양떼와 소떼를 지키기 위해 318명의 사병을 키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목축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은 사병을 기르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빼앗으면 그들에게 양보하며 베풀고 떠났습니다. 싸우는 시간에 다른 우물을 계속 팠습니다. 3번을 빼앗으니 양보해주고 4번째 샘을 파니 또, 물이 솟았습니다. 그래서 그 샘을 르호봇이라 이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여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하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삭이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원수들을 위해 잔치도 베풀어주었습니다. 이삭은 감정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싸워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이긴 사람은 남과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싸우는 인생, 복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넓은 마음, 용서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37:11에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갈5:24)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에 의하면 현실의 감옥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감옥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6개의 감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1)자기도취의 감옥: 공주병, 왕자병에 걸린 사람은 항상 자신의 기분에 다른 사람이 맞추라고 합니다. 2)질투의 감옥: 남이 잘되는 것을 보면 괜히 배가 아프고 시기 나고 헐뜯고 싶어집니다. 3)비판의 감옥: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비판하고 헐뜯다가 결국 원수를 맺게 되는 마음의 감옥입니다. 4)과거지향의 감옥: 옛날이 좋았다고 하며 과거의 추억에 매여 시간을 낭비하고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5)선망의 감옥: 내 떡이 소중한줄 모르고 남의 떡만 크게 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은사를 썩혀버립니다. 6)절망의 감옥: 작은 고난만 닥쳐도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과 원망만 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런 6가지 마음의 감옥이 내면에 있어 그 감옥 속을 차례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인생은 그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32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데는 진정한 용기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을 지휘하던 부수장군은 전쟁에 참패하여 전멸하다시피하였습니다. 남은 부하들은 모두 숲속으로 도망가고 부수장군도 동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는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동굴어귀에서 거미가 줄을 치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 6번을 실패하였지만 7번째 성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부수장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난 겨우 한번 실패했다" 그리고 다시 군사들을 모아 전쟁터로 나가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수장군은 전쟁에서 역전승을 거두기전에 먼저 자신 속에 있는 패배의식과 좌절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절망감과의 내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모든 환경이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문제, 가족문제, 경제문제, 인간관계문제 등 살아가다보면 극복하기 힘든 여러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급해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인생의 마스터키를 갖고 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사람이 없는" 참된 권세자 예수님께 올려놓으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라고 했습니다. 이삭처럼 자신을 잘 다스려 승리하므로 하나님께 복 받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songkpak@hotmail.com

제42회 HYM 청년연합집회에서 피세원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귀히 쓰는 그릇" 주제로

제 42회 HYM 청년연합집회, 강사 피세원 목사

제 42회 HYM 청년연합집회가 부에나팍에 위치한 뉴송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찬양팀(인도 국중현 형제) 찬양인도로 시작됐으며 피세원 목사(오렌지한인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했다.

이번 집회는 코비드19으로 인해 교회가 아닌 스튜디오에서 3일 (토) 오후 7시 집회가 열렸고 유투브 채널(https://youtu.be/oLMa4mH03fk)을 통해 온라인 집회로 중계됐다.

피세원 목사는 '귀히 쓰는 그릇(딤후2:20-26)'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계를 표현하신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신다. 주인에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돼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주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라는 말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금 그릇이 되기 위해 애 쓰겠다고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 그릇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그릇은 하나님의 다양성을 위해 나누셨다. 가치의 개념이 아니다. 어떻게 준비 되었냐에 따라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피 목사는 "우리 모두는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영적으로는 더욱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준비되는 시간들로 보내게 되었으면 한다"며 "첫째, 깨끗하게 되어있는가를 물어보신다. 둘째, 비워져 있는지를 봐야 한다. 아무리 금 그릇이라도 지저분한 것 혹은 많은 것이 담겨있다면 새로운 걸 담기 어렵다. 우리에게 그릇을 주셨을 때 부어주신 새로운 은혜를 기대한다면 비워야한다. 나의 지식과 지혜와 삶의 노하우 경륜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임하신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 능력 부어주시기 원하신다. 그러려면 모든 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게 된다"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릇 깨끗하게 준비하고 비워놓아야 할 때 우리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 말했다.

설교에 이어 더글러스김 목사가 결단의 기도의 시간을 인도했다. 이날 집회는 피세원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은혜한인교회 추계부흥성회에서 진재혁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축복이 삶이 되는 기도! 능력이 기도가 되는 삶!

은혜한인교회 추계부흥성회, 강사 진재혁 선교사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추계부흥성회가 '축복이 삶이 되는 기도! 능력이 기도가 되는 삶!(마6:9-13)'이라는 주제로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4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 집회는 함완구 목사 인도로 시작 송금관 장로가 기도했으며 진재혁 목사(전 지구촌교회 담임, 케나선교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마6: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진 목사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귀한 기도 우리 삶의 축복이 되고 기도의 능력이 된다"라며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묵상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걸 주시기 원하는 아버지에 대한 묵상 하나님 나라 임하길 통치하심이 우리 안에 이뤄지길 이 땅에서 우리 삶에서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 목사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는 필요한 기도일까? 우리기도는 구원에 대한 기도가 아니다"라며 "이미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생명에서 사망으로 다시 흔들 것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죄의 사항은 구원에 대한 죄가 아니다. 죄는 일상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교재가운데 짖는 죄다. 우리삶속에서 구원받고 깨끗함 받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죄는 아버지께 관계와 사귐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용서의 기도"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죄를 용서해야 하는 것은 조건적으로 있는 거 같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첫째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모든 고난 수난 비난을 당하셨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용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해야 한다. 셋째 용서하기로 결단하라. 그리고 용서한다고 예수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제5차 베델신학강좌 마지막날 시간에서 김한요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내 주 반석 위에 든든히 서리라!'

제5차 베델신학강좌 9월 매주 수요일 개최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제5차 베델신학강좌를 '내 주 반석 위에 든든히 서리라!'란 주제로 9월 한달간 매주 수요일에 개최했다.

9월 30일 열린 마지막 날 강좌는 본 교회 강문구 목사 사회로 Q&A 및 토크쇼로 열렸으며 김한요 목사와 본 교회 교육부 디렉터 이진아 전도사가 출연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 정부와 크리스천 양심이 충돌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9월 2일 강사로 나선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는 "1세기 그리스도인을 생각하자.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현재 상황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크리스천 사립학교나 홈 스쿨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자녀교육에 대해서 이진아 전도사는 "홈스쿨 및 온라인 교육시 부모가 교재를 사서 가르칠 때 건강한 정신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아베카 아카데미(abeka accademy)는 온라인으로 크리스천교육을 하는 기관이며 교육비는 연 950달러(1-6학년), 1,219달러(7-12학년)이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하다 퍼블릭으로 가려면 교육기관으로 정식인증 받은 곳에서 교육하는 것이 좋은데 이곳이 해당 된다"고 설명했다.

△동성애 부부가 새가족으로 등록하려 한다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김한요 목사는 "공개적으로 동성부부이고 교회가 어떻게 대하는지 가늠하고자 하는 의도적 접근이라면 교회와 총회가 가진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교회등록을 거부할 것"이라며 "하지만 동성부부인줄 몰랐을 경우 이에 따른 접근도 지혜롭게 해야 한다. 의도 없이 교회가 좋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좋다면 오픈할 것"이라 대답했다.

△학교의 동성애 교육에 대해 이진아 전도사는 "캘리포니아주의 자녀가 LGBTQ의 경우 SB1172 법안으로 인해 상담이 불가하다. 콜로라도스프링스에 위치한 Restoredhopenetwork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캔자스시티에 있는 dessertstream에 20주 프로그램 이곳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한요 목사는 "캘리포니아에 동성애 문제가 있지만 탈동성애 도움 받는 것이 금지돼있다. 그러나 타주에 가서 배울 수 있다면 자녀들의 정체성을 지켜주면서 그곳에서 교육받고 오는 것을 교회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상으로 친동성애 교육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진아 전도사는 〈10면으로 계속〉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전국대회 마지막날 행사가 마친후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전국대회 2일간 열려

이승만대통령의 날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축하기념식도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전국대회 마지막 날 행사가 10월 일낮 12시 SS레인빅토리호에서 열렸다. 윤우경 아나운서 사회로 열린 마지막날행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날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축하기념식으로 열렸다.

애국가와 미국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으며 데이빗 존스 목사(SS레인빅토리호 채플린), 최학량 목사, 김현국 목사(미주보수장로교단 총회장), 김태훈 목사(애리조나애국동지회), 조응규 전 국회의원, 한성주 대한민국 예비역 공군소장, 공병호 박사 순으로 축사가 이어졌다.

조응규 위원은 "6.25 한국전쟁이 휴전을 앞두고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협정 제시했다. 그리고 1953년 6월 반공포로 25000명을 석방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했다"며 "당시 미국과 소련이 일방적으로 휴전을 하려고 한 것을 이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국군만으로 북진해 통일을 이루겠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은 이 대통령이 요구했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받아들였으며 조약체결 조건으로 남북간 휴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병호 박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우하사라는 문장을 생각해 본다"며 "100여 년 전 3천 여명 선교사 파송 70%가 미국선교사이고 그중 60%정도가 2-30대 여성이었다. 한민족은 특별한 주님의 은혜 받은 민족이다. 현실세계에서도 빛과 소금 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 박사는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한국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가호와 은혜 평강이 임할 것을 믿는다. 걸음걸음마다 예수님 은혜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대한민국위해 기도해 달라. 제2조국 미국은 너무나 특별한 나라다. 미국이 훨씬 자유롭고 번영된 나라로 전 세계 소금역살 담당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우호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번 전국대회는 10월 1일 제1회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날 기념 친선 골프대회를 라하브라에 위치한 웨스트리지 골프코스에서 가졌으며 2일 아침 김승현 회장 초청 공병호 박사 환영 조찬기도회를 커넬대학교에서 가졌다.

그리고 대한인국민회를 방문했으며 저녁 6시부터 커넬대학교에서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날 기념예배 및 세미나를 가졌다.

기념예배는 김현국 목사 사회로 열렸으며 최학량 목사가 기도를, 금병달 목사가 설교와 폐회기도로 마쳤다.

이어 이우호 목사 사회로 세미나가 열렸는데 임용근 의원, 조응규 의원 한성주 장군, 공병호 박사가 강의했으며 김현국 목사가 간증했다.

〈박준호 기자〉

교계 게시판

뉴욕교협 장학생 선발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민석 목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한다. 대상은 기독학생 15명과 일반(비기독교)학생 15명을 선발 각 1천달러씩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1)미주내 정규대학교 풀타임재학생(유학생 포함)으로 GPA 2.7이상 2)2년 이상 교회출석 3)재정적 어려움으로 학비에 문제가 생긴 학생 △제출서류는 1)장학금 신청서(교협발행) 1통, 사진첨부 2)성적증명서 1통 3)담임목사 추천서 1통 4)신앙에세이(본인의 신앙 및 미래비전) 2페이지 이상 5)신청사유-재정현황 1페이지. 신청마감은 10월 13일(화) 오후 4시 선착순. 이메일(nyckcg@gmail.com)이나 교협사무실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문의: (718)279-1414

뉴욕청소년센터 정기총회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 산하 청소년센터(AYC, 대표 황영송 목사,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 정기총회가 10월 8일 (목) 저녁 6시 교협 청소년센터에서 열린다.

▲문의: (718)270-1313

중학생을 위한 호돌이 방과후 학교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이지혜) 호돌이 방과후 학교에서 무료 중학생들 위한 방과후 학교 학생들을 모집한다. 프로그램 시간은 오후 2시 15분부터 5시 15분까지이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진행된다. 숙제를 100% 끝내도록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글쓰기, STEM(수학을 이용한 기술 및 공학 배우기), 리더십 훈련, 미술, 인성교육 및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수업태도 및 학력향상에 따라 한달에 한번씩 인센티브(선물)가 제공된다. 수업방식은 줌(ZOOM)과 구글 클라스룸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뉴욕시의 지원으로 수업료는 무료다. 40명 제한.

▲문의: (917)497-4024

뉴저지 KCC 개인전

뉴저지 한인동포회관(KCC)에서 김진홍(우연의일치, 9/28-10/11), 김호봉 작가(결핍, 10/13-10/26) 개인전을 진행한다. KCC측은 코비드 상황이지만 일상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201)541-1200 ext.115

뉴저지 KCC 웰빙 엑스포

뉴저지 KCC(한인동포회관, 관장 김희선)는 커뮤니티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24일(토) 오전 9시부터 〈웰빙 엑스포〉를 진행한다. 웰빙엑스포는 코비드 테스트를 비롯해 무보험자, 저소득층 가정, 서류미비자 및 KCC회원을 우선순위로 무료 풀루샷, B형 감염항원, 항체검사, 건강보험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약신청은 jenny.ahn@kccus.org, youngjoo.kim@kccus.org

▲문의: (201)541-1200(ext. 111,114, 117)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9월 정기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펜데믹 속 신규 후원아동 18명 추가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9월 정기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9월 정기예배가 지난 30일 오전 10시 30분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권캐더린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권캐더린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신규 아동후원으로 18명이 추가됐다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개회기도를 했다.

이날 사무총장 박이스라엘 목사는 아동후원 상황을 보고하고 각 국가별 소식도 보고했다.

한편 11월말에 예정됐던 '2020 후원자의 밤'은 펜데믹 상황으로 11월 정기예배(25일)와 함께 '2020후원자의 날'로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장소는 뉴욕에벤에셀교회(담임 최창섭 목사)로 동일하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성원 목사 인도로 기도 전희수 목사, 특송 권캐더린 목사 김사라 목사, 설교 이준성 목사, 합심기도, 축도 박진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준성 목사(뉴욕목사회 회장)는 "이렇게 기도하라"(마6:9-15)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다.

이 목사는 "우리는 아전인수격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기도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3가지 청원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행하고 그 행함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속에 가져야 할 3가지 청원이 있다. ①일용할 양식 ②죄사함 ③시험에 들지 않도록"이라며 "이 청원의 결과는 용서"라고 말하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멀리 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월례예배는 28일(수)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장소는 미정.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breadngospel.org)는 콜롬비아(김혜정 선교사)와 페루(김중언 최은실 선교사), 과테말라(장경순 박윤정 선교사), 코트디부아르(김형구 이선미 선교사), 엘살바도르(황영진 황은숙 선교사)의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월 30달러로 1명의 아동을 후원할 수 있다.

▲후원문의: (646)247-8258 권캐더린 회장, (917)667-8555 박이스라엘 사무총장

〈유원정 기자〉

회장 이정환 목사, 부회장 고한승 목사

뉴저지교협 제34회 정기총회, 공천위 추천으로 박수추대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제34회 정기총회가 9월 29일 오후 5시 뉴저지순복음교회(담임 이정환 목사)에서 열려 △새 회장에 이정환 목사 △부회장에 고한승 목사를 선출했다.

뉴저지교협 제34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저지교협은 회장 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했던 부회장이 사퇴하고 부회장 후보 등록자가 없는 가운데, 지난해 제정된 회칙에 따라 담임으로 시무중인 전 회장들로 구성된 공천위원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공천해 정기총회에 내놓았다.

공천된 회장 후보는 이정환 목사(뉴저지순복음교회), 부회장 후보는 고한승 목사(뉴저지연합교회)로 회원들은 투표 없이 박수로 회장과 부회장으로 각각 추대했다.

신임 회장 이정환 목사는 "갑자기 공천돼 잘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맡게 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최선과 성실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연합과 일치를 위해 일하겠다"며 지난 33회기의 수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협조와 조언을 부탁했다.

선관위원장 홍인석 목사가 경과보고를 했으며, 공천위원장 양춘길 목사는 공천발표를 통해 △후보자의 목회 △교단분배 △연합에 원만한 리더십 등 3가지 지침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공천했으며 당사자들이 수락했다고 소개했다.

회칙에 따르면 공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하지만 회장 후보는 김종국 목사가, 부회장 후보는 송호민 목사가 투표 없이 박수로 받자고 제안해 투표 없이 진행됐다.

△평신도 부회장은 육귀철 장로(주소원교회)가 추대됐으며 △감사는 김근출 장로(오늘의목양교회)와 송호민 목사(한성개혁교회)가 선출됐다.

회계보고는 경상비 수입 46,233달러, 지출 40,693달러였으며 이와 별도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교회를 위한 모금활동을 벌여 49,500달러를 모금했다.

신입회원은 임원회를 통과한 6개 교회 중 총회에 참석한 뉴저지 가나안교회(최성남 목사), 세움교회(김주헌 목사), 우리사랑의교회(박종윤 목사) 등 3개 교회가 가입됐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회장 최춘호 목사 인도로 기도 배광수 장로(부회장), 성경봉독 송호민 목사(기록회계), 찬양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 설교 홍인석 목사(직전 회장), 헌금기도 김근출 장로(사무회계), 광고 육민호 목사(총무), 축도 정성만 목사(전 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홍인석 목사는 "기도의 때"(마7:7-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현실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며 "아울러 어려움 속에서 말씀하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이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가슴이 뛰는 목사와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예장백석 미주동부노회 제 59회기 추계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노회장 김충전 목사, 부노회장 신우철 목사

예장백석 미주동부노회 제 59회기 추계 정기노회

예장백석 미주동부노회 제 59회기 추계 정기노회가 10월 5일 저녁 5시 뉴욕선민교회(담임 함성은 목사)에서 온오프로 열렸다.

동 노회는 지난 4월 임원개선과 더불어 정기노회를 가져야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부노회장 김충전 목사(브라운스빌한인장로교회)가 노회장 대행으로 준비해 개최했다.

이날 △노회장으로 선출된 김충전 목사는 "소통하는 노회"로 열심히 섬기겠다고 인사했다.

△부노회장은 신우철 목사(가스펠장로교회) △서기 장규준 목사(뉴욕주님교회) △회계 한기철 목사(뉴저지움직이는교회) △회록서기 이인철 목사(뉴욕나인성장로교회) △부회록서기 양명철 목사(한울림교회)가 선임됐다.

새 임원진은 팬데믹 상황으로 2020년 4월까지 지속되는 헌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또 2019년 이전 노회비 미납은 탕감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이종진 전도사의 강도사 인허 △이대은 전도사(뉴욕 아름다운교회) 신입회원 가입도 있었으며 △최문재 선교사(온두라스), 이용정 선교사(인도네시아), 이성우 선교사(중동권 대기)가 줌으로 선교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충전 목사 인도로 기도 장규준 목사, 설교 김충전 목사, 강도사 인허식, 감사기도 함성은 목사, 축도 주효식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충전 목사는 "백석인의 신앙"(계2:17)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백석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백석이 통합을 자주 해온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고자 하는 정신 때문"이라며 "연합은 희생 없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백석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이다. 미동부노회가 이 생명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자. 흰돌을 받기까지 싸워서 이기는 백석인 되자"고 역설했다.

이번 정기노회는 현장참여 19명, 줌으로 17명, 위임 등 총 42명이 참석해 노회 사상 가장 많은 참석률을 보였다.

동 노회는 뉴욕시찰(시찰장 송원섭 목사), 뉴저지시찰(홍지철 목사), 아틀란타시찰(김학식 목사), 캐나다시찰(이승남 목사), 필라델피아시찰(임준한 목사), 선교사 회원(3명)으로 목사회원 54명, 강(전)도사 5명, 장로 3명 등 총 62명의 총대가 있다.

이날 코로나 기간에 별세한 전형권 목사와 타 교단으로 이전한 전성호 목사, 배대진 목사는 제명하고 김법천 목사는 별도 명부로 주소록을 수정하기로 결의했다.

〈유원정 기자〉

〈9면에서 계속〉

"온라인으로 충분히 친동성애 교육이 가능하므로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는지 부모들은 아이들이 방문을 열고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요 목사는 가정에서의 성교육을 강조하며 "부모가 먼저 성교육에 관해 교육을 받아야 하며 먼저 부모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부모와 소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의 나이에 맞는 적절한 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학강좌는 9월 2일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가 "차별금지법의 문제와 미국 상황에서 대처방안", 9일 함영주 교수(총신대학교)가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교육", 16일 박응규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동성애 금지에 대한 교회사적 고찰과 우리의 대응", 그리고 23일 김희석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가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 대해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시더스-사이나이, 한인 암검사율 향상을 위한 '콜 투 액션'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웃케어클리닉 온라인 세미나

시더스-사이나이, 한인 암검사율 향상위한 '콜투액션' 개최

10월 전미 유방암 인식의 달을 맞아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 소장 애린 박)과 시더스-사이나이 암센터(이하 암센터) 산하 건강형평성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일 한인 교계 및 단체, 언론을 초대해 '코로나 시대, 유방암 검사의 중요성'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한인들에게 유방암을 포함한 각종 암 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했다.

애린 박 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유방암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 등 암 검사가 크게 감소했다. 최근 전미의학협회지(JAMA)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유방암 진단건수도 52%나 줄었다"며 "암은 코로나19가 확산한다고 해서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정기검진, 정기검사를 받고 건강을 관리,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이어 "암, 특히 유방암은 정기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에 이르고 완치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연구소의 줄 수라니 커뮤니티 아웃리치 디렉터는 "한인들의 암 검사율이 미국 전체보다 낮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인 단체, 종교기관 등과 협력해 최신 의료연구 정보와 암 예방법, 검사방법 등을 알리고 건강 불평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더스-사이나이 유방암치료센터의 아이린 최 임상간호사(RN, CN)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암에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유방암 조기발견 생존율은 99%"라며 "유방암 검사를 미루지 말고 꼭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미나에서는 무료로 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웃케어클리닉 서비스 소개가 있었다. 시더스 사이나이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무료 유방암 검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유방암, 자궁경부암 예방법과 무료 검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웃케어클리닉에서는 40세 이상 여성으로 건강보험이 없고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00%(1인 기준 월 2128달러, 2인 2874달러, 3인 3620달러, 4인 가족 월 4760달러)를 넘지 않으면 1년 이상 유방암 검사를 받지 않은 여성에 한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문의: (213)637-1081, 235-1215

〈박준호 기자〉

오렌지한인교회 10월 4일 현장예배 재개

오렌지한인교회(담임 피세원 목사)는 현장예배를 10월 4일 재개했다. 2부 예배(10시)에 재개된 현장예배는 피세원 목사 인도로 시작, 신앙고백, 참회기도로 이어졌으며 김두환 장로가 대표기도했다. 이어 홍영례 권사가 특별 찬양했다.

오렌지한인교회에서 재개된 현장예배에서 피세원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날 피세원 목사가 '결국 순종입니다'(수7:2-5, 8: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말씀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하게 됐다. 성공과 실패의 가장 큰 핵심은 순종여부"라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위해 첫째, 하나님말씀 잘 들어야 한다. 하나님말씀이 사라지는 곳에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게 하고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하나님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둘째, 순종하기위한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마음 문을 열 때 순종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 셋째, 하나님말씀을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우선순위로 갖다놓아야 한다. 넷째, 교만함과 두려움을 내쫓아야 한다. 교만함을 내쫓아야 한다. 교만함은 다른 죄로 인도되고 목숨까지 해할 수 있는 죄로 나아간다. 두려움을 내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순종다워진다. 그렇지 않으면 큰 짐과 불평으로 다가온다"라며 "다음세대에도 신앙유산을 전달해 자녀들이 하나님말씀 듣기 원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주님 앞에서 치유함 받고 문제 해결되는 가정들이기를 바란다. 사랑의 모습이 자자손손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22)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낭떼르 대학의 '68혁명'으로 성 해방 시작, 한국 '학생인권조례'로 이어져
포스트모더니즘, 젠더이데올로기로 하나님중심 무너지며 코비드19로 심화

(5)68혁명(革命)과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

a)프랑스 낭떼르(Nanterre) 대학의 68혁명(革命) : 성(性)의 해방(解放)'

"모든 금지(禁止)한 것을 금지(禁止)하라"라고 '성해방'을 주장하여 1968년도 5월에 프랑스에서 발생한 낭떼르(Nanterre)대학 68혁명과 현재, 한국에서는 좌파(左派) 교육감들이 주도(主導)하여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성' 해방을 조장(助長)시키고 있는 것과 일맥(一脈) 상통(相通)한다. 심지어 한국의 정의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군대(軍隊)내에서 행해지는 '동성애(同性愛)는 죄가 아니다'라고 계속 입법(立法)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 해방 주장은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挑戰)이요 반역이며, 중대범죄(重大犯罪)이다. 그래서 독일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칼 야스퍼스(Karl Jaspers)'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1848년 마르크스(Karl Marx)의 공산당(共產黨) 선언(宣言)의 해에서 배우듯, 21세기의 아이들은 1968년 68혁명에서 배울 것입니다"라고 썼다. 그녀의 예언(豫言)대로 21세기 좌파들의 사상적 근간(根幹)은 68혁명과 그에 상응하는 철학(哲學)들이다. 그 구조주의(構造主義, structuralism) 철학자들이 바로 마르크스(Karl Marx), 프로이드(Sigmund Freud),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이다.

그렇다. 19세기는 계몽주의(啓蒙主義) 시대로 'No God', 'No Master'(하나님도 없고, 스승도 없다) 주장하며 공산주의자들이 특세(特勢)했다. 20세기에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철학(哲學)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기(後期) 구조주의(structuralism)는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라캉(Jacques-Marie-Émile Lacan) 등으로 대표(代表)된다. 결국 21세기의 화두(話頭)가 된 패륜(悖倫)의 사상인 '젠더 이데올르기'(Gender Ideology) 형성의 중요한 토대(土臺)가 되었다.

b)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모더니즘(modernism)이란 '현대적인', '근대의' modern에 '주의(主義)'의 ism, 즉 "근대주의", "현대주의"를 말한다. 사상적 측면에서 중세시대의 카톨릭의 권위와 전통을 반대하는 개념이다. 모더니즘은 기존의 교회와 왕 혹은 귀족중심주의를 타파하고, 권위에 도전, 발전하면서 새로운 문명을 자유롭게 받아들이자는 이성중심관(理性中心觀)이다.

인간은 이성이라는 합리적인 도구로, 사회를 보다 더 발전시킬 발전적 관점의 역사관으로 획일성, 통일성, 형식주의, 고급/저급 문화, 남성중심사회, 서구중심의 문화를 지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성을 가진 인간들의 만행으로 많은 반성을 하였고 그로 인해 포스트모더니즘이 나오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란 모더니즘이란 말에다 '뒤'나 '후'(後)를 뜻하는 포스트(post)라는 접두어를 붙여 만든 말이다. 즉, 모더니즘에 반(反)하는 사상을 갖고 출발한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획일성, 통일성, 형식주의를 거부한다. 탈이성중심주의이다. 여성의 세계관에 가치를 부여하였고, 다원화와 다양한 문화를 인정한다. 경계를 허물 것을 주장한다. 문화적(文化的)인 측면에서는 모더니즘의 엘리트 경향을 비판하고, 고급문화-대중문화의 위계를 해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대중문화 또는 서브컬처(subculture)의 확산을 가능케 한 사상적(思想的) 근거(根據)를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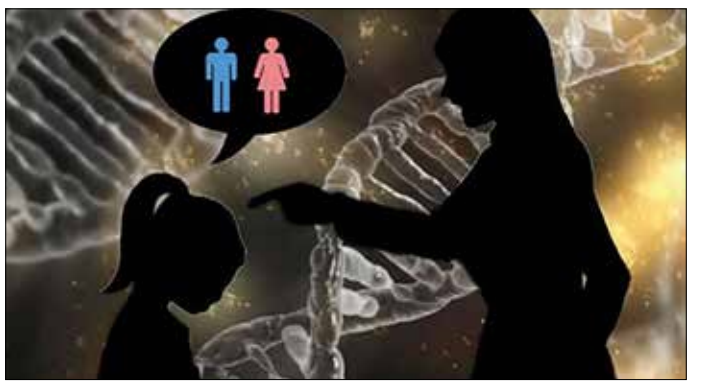
포스트모더니즘은 1979년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가 '포스트모던의 조건'(The Postmodern Condition)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하나의 사상적(思想的) 사조(思潮)로 분류했다.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의 이성적 문화적 법칙을 만들어내려 했던 권위적(權威的)인 모더니즘'과 달리 탈이성(脫理性)적인 것, 다양성과 탈권위적인 것을 추구한다.

요약하자면 모더니즘(modernism)은 규칙성, 이성성, 효율성, 남성성을 내포하는 사상이라면, 포스트모더니즘은 그 반대의 속성을 지니는 사상이라고 보면 된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보드리야르 등이 대표적인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철학자들이다.

c)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

젠더(gender)란 사회적 성(性)을 뜻한다. 남녀로 구분되는 성(sex)만 고집하지 말고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트랜스젠더 등 각자가 마음대로 성을 선택(選擇)할 수 있도록 하자는 다원주의적 사고가 깔려 있어 그 범위가 계속 확장(擴張)되고 있다. 젠더는 사회적 책임이 빠진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인 '성적 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 성욕을 뜻하는 '섹슈얼리티'(Sexuality) 등과 함께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핵심 용어이다.

그러므로 젠더 이데올로기란 "인간의 출생시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생물학적 성(sex)이 아니라, 사회· 문화· 심리적 성(性)으로 간주되는 젠더를 통해 임의대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사조(思潮)를 말한다.



특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이루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라는 결혼(結婚)제도를 해체하고 그 대안(代案)으로 동성애적, 레스비적, 성전환적, 혼음적 형태가 "성적 다양성"(sexual diversity)이라는 표현과 명목을 가지고 동등한 가치를 가진 생활 공동체를 제안한다. 이러한 형태들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정상적(正常的)인 이성애자들을 "동성연애 혐오자"로 매도, 비난 하면서 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을 제정하여 이들을 사회구조적으로 억압(抑壓)하려 한다.

1960년대 서구에서 '성교육'이 시작된 지 약 30년 후인 1995년 UN은 북경 '제4차 세계 여성 국제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UN은 모든 원칙들과 법칙들은 성(Gender)을 염두에 둔다고 결의하였다. 그 내용은 기독교의 신(神)중심주의가 모든 문화와 삶의 목적이 성(性) 중심적으로 이동되는 것이다. 막스주의나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진 현대 여성운동은 인간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즉, 신막스주의(neo-Marxism)나 현대 여성운동가들이 수행하려는 '성 혁명'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창조물과 창조주를 대항(對抗)하는 혁명(革命)인 것이다.

복음주의학자 낸시 피어시(Nancy Randolph Pearcey)는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는 결국 여성(女性)과 가족(家族)에 대한 합법적인 인식을 파괴(破壞)한다' 그러면서 "창조(創造) 질서(秩序)를 무너뜨리고 사람의 성(性)을 없애고, 사회에서는 법적(法的) 부모, 자녀가 없어지게 됐다. 기존(旣存)의 가정은 부적절(不適切)한 의미가 되었고, 인간의 생물학적 개념을 말하는 것은 혐오(嫌惡)의 개념으로 전락했으며, 인간성은 말살(抹殺)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톰 라이트(Tom Wright)는 "기독교의 가치(價値)와 교회를 보호(保護)하기 위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對處)해야 한다"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신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공의(公義)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라고 했다.

21세기인 오늘날은 제2의 계몽주의(啓蒙主義) 포스트모더니즘시대(時代)로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모든 것을 부정(不正)하고 해체(解體)하는 시기에 도달한 것이다. 미국 역시 동성애와 낙태, 등등 특히 종교다원주의에 함몰되어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 파괴와 타락, 부패를 유도하는 반기독교적(反基督教的) 포비아(Phobia) 정책(政策)과 입법 시행(施行)으로 점점 더 기독교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암흑기(暗黑期)의 정점(頂點)인 종말(終末)의 종말로 향하고 있다.

2020년에 닥친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의 대유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심각한 위기 국면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실천(實踐)이요, 청교도 신앙의 가치관이며 구령운동(救靈運動)의 원천(源泉)이었던 주일성수(主日成遂) 개념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지구적으로 횡행함과 죽음의 공포와 전염의 위험으로 대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모든 공공집회 불허와 더불어 철저히 무너져 내린 상태이다.

주일예배를 비롯한 모든 교회 집회가 원천 봉쇄(封鎖) 된 것이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대다수 방역((防疫) 전문가 그룹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소멸 후, 다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조기 회복과 발전, 그리고 정상화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특히, 교회의 형편은 더 더욱 심각, 위기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展望)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 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 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슥 4:6-7).

그렇다. 이제 청교도 미국 이주(移住) 400년을 맞이한 2020년 현재, 다시 한번 청교도적(淸教徒的) 성경관(聖經觀)과 세계관(世界觀)으로 세워진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여호와 앞에서 겸비(謙卑)하여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진정 회개해야 한다. 그러므로 위대한 미국에서 제3의 청교도 신앙 대각성(大覺醒) 부흥(復興)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코람데오(Coram Deo)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Absolute sovereignty),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서 확실히 세워야 한다. 따라서 다음 회(回)부터 구체적(具體的)인 청교도들의 신앙(信仰)과 삶, 그리고 성화(聖化)를 살펴보고자 한다.

kimjoyh@hotmail.com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아, 유치,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김형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EM)
수요찬양: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804)560-7500, www.l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원로칼럼

교회에 상처를 내지 마라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코로나19 방역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교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교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교회와, 대면 예배를 당연히 해야 한다는 교회로 서로 갈라져 있다. 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은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교회를 박해한다고 주장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쪽으로 갈라져 있다. 이로 말미암아 목사가 목사를 비판하고,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가 하면 중도를 표방하는 교회도 있다. 목사들 중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기독입국을 생명으로 알고 애국적인 행동에 동참하는 분들도 있지만 목사 이름을 가지고 정부의 방침을 두둔하는 친정부 인사도 많다.

정부의 공작(工作)은 성공적이었다. 목사들 중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종북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분들도 적지 않다. 또 어떤 비판세력들은 한국교회의 개혁을 강조한다고 말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목사를 향해 '헌금을 많이 거두려는 것 때문이다'라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던져 주님의 교회를 희롱하며 비판하고 있다.

한 술 더 떠서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정부 비판을 했다는 목사를 이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반대로 고난당하는 지도자들은 이단 운운하는 교회나 지도자를 향해서 거꾸로 '그 자들이야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단이다'라고 역 공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분위기는 '이렇게 교회가 환란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광화문 세력 때문이다'라고 몰아 부치기도 한다. 광화문집회 때문에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에 장애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행정당국은 교회를 코로나19의 주범으로 프레임을 걸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 오늘날은 교회가 교회끼리, 목사가 목사끼리 삿대질을 하고 있는 꼴이다. 한국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일치단결하여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종교의 자유가 넘치는 국가를 만드는데 힘을 합해도 모자랄 판에 이처럼 서로 사분오열(四分五裂) 갈라지고 있으니 참으로 가슴 아프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는 이런 논쟁 자체는 결국 신학의 문제이고, 세계관의 문제라고 본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세울 때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핑계 삼아 교회를 서로 갈라놓는데 성공을 했고 이 갈등은 코로나19 문제가 해소된다 해도 계속될 것이다.

일찍이 미국 칼빈신학교 교수였던 R.B. 카이퍼(R.B. Kuiper)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교회에 상처를 내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교회에 상처를 내는 것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교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정부의 공권력과 독재자가 교회에 상처를 주는 일도 많았다. 예컨대 로마에서부터 러시아, 중국, 북한 등 많은 공산주의 독재국가가 종교를 아편으로 매도하고, 독재정권과 사회주의 정권에 반대하는 목사와 지도자를 투옥하고, 죽이고, 종신형을 살게 했다. 그래서 순교하신 분들은 수도 없이 많았다.

하나님의 교회에 상처를 내는 것은 곧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 된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 상처를 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정부의 관리가 되었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이에 관해 내 개인적인 체험을 하나 말하고 싶다. 1967년 나는 농촌의 개척교회를 시무하고 있었다. 나는 그 당시 열악한 농촌 환경과 허술한 예배당에서 목회를 했었다. 농촌은 대게 그 마을에 땅 부자가 있었고, 집들은 지주의 땅을 빌려서 집을 짓고, 일년에 한 번씩 토지세를 바치는 격이었다. 우리 교회도 그랬다. 그런데 내가 그날 결혼주례를 하고 있었는데, 입구가 좁아서 교회에 들어오는 하객의 차가 그가 일구어 놓은 채소 몇 포기를 망가뜨렸다. 화가 난 그 동네 지주가 우르르 달려와서, 교회에 딸린 조그마한 시설물을 지개 작대기로 후려 때리면서 하는 말이 '이놈의 것을 오는 3월 1일까지 철거를 안하면 교회를 부셔 버리겠다!'고 고함을 치는 것이다. 그때가 11월 말이었다. 그가 3월 1일자를 철거날짜로 못 박은 것은 당시 정부시책이 불량건물을 그때까지 철거 안하면 부셔 버린다는 시책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시설물을 부셔 버리겠다고 저주했던 것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부터 무슨 병인지는 잘 몰라도 그는 창자가 썩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서울의 큰 병원에서 몇 달을 치료하다가 가망이 없자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운명했다. 그날이 3월 1일이었다. 이 사실을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 사건 이후로 믿는 자들이 많아져 교회는 부흥되었고, 교회당을 지어 헌당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내가 겪은 간증거리지만 지난 53년 동안 설교에서나, 글에서나 한 번도 말한 일이 없었고 오늘 비로소 공개하게 되었다.

오늘날처럼 목사들이, 장로들이, 성도들이 불신 정부의 지도자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상처를 주고 있는 이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른 손에 있는 일곱별을 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았으면 한다.

skc0727@yahoo.com

"교단설립 60주년 하나됨 위해 노력"

예장대신 새 총회장에 이상재 목사, 한교연 탈퇴, 한교총가입 결의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총회가 최근 경기도 의왕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상재(함께하는교회) 목사를 새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목사부총회장은 이정현(소망교회) 목사, 장로부총회장은 주홍철(화평교회) 장로가 당선됐다.

이상재 신임 총회장은 "예장 대신 총회 55회기는 교단 설립 60주년의 해"라며 "대신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한 교회, 목회자 양성에 힘쓰고 교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안정적인 목회를 위해 목회자 연금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안정적인 목회사역을 위해 목회자 연금이 실시돼야 한다"며 "다만 위험부담이 큰 교단 단독의 연금제도 형식보다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연금제도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했다.

교계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연합을 탈퇴하고 한국교회총연합 가입을 결의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결의를 채택했다.

"차별금지법 문제 있다..."

법사위원 2명 부정적 의견 피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논산 계룡 금산)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가운데 같은 당 소속으로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송기헌(원주을) 의원도 법안이 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안이 회부된 법사위 제1소위원회 소속 8명의 위원 중 2명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송 의원은 지난 29일 강원도 원주 학성감리교회에서 열린 원주시기독교연합회 주최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안대로라면 자기 신념에 따라 사회주의 이론을 비판하거나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 타 종교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표현할 경우 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처벌 때문에 자기 세계관과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특정 신념과 주장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논리는 분명 문제가 있다.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가인권위에 집중되는 과도한 권한과 국회 입법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회와 달리 국가인권위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기관인데도 차별금지법은 모든 법을 국가인권위에서 자문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국가인권위가 과도하게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권력균형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선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진리를 설파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당사자들은 불가피하게 정신적 고통을 겪게 돼 있다"면서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행위 비판을 행위자 차별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당한 동성애 비판이 사람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둔갑해 버린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특정 가치관을 반대하는 사람을 거액의 이행강제금과 소송으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독재 논리"라면서 "이렇게 되면 특정 사상을 반대하는 사람은 침묵을 강요받고, 그 사회는 공포사회가 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진보 보수, 특정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의당이 특정 소수자의 정신적 고통을 막겠다면서 반대자를 처벌하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안 안에 가치관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조항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홍구 원주시기독교연합회장은 "차별금지법안이 얼핏 보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세하게 따지고 보면 비판자를 역차별하는 등 그 폐해가 너무 크다"면서 "국회는 법안의 폐해를 똑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도 "송 의원의 지적대로 국가인권위는 헌법기관도, 법률 상위기관도 아니다"면서 "그런데도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통해 모든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에 자문하도록 해놓고 법까지 고치도록 해놨다.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했다.

"낙태죄 전면폐지 결사반대..."

여성과태아모두를위한여성생명연대, 109명 여성 서명 받아

'여성과 태아 모두를 위한 여성생명연대'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낙태죄 완전 폐지 국가를 거부한다"며 "생명존중, 인권보호의 국가 기조에 걸맞은 진정한 선진국 수준의 낙태법 입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생명연대는 28일 오후 1시부터 29일 정오까지 서명을 받았다. 여성생명연대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결사반대하는 여성들도 많다는 것을 알린다"며 "서명을 시작한 지 23시간 만에 교육계 의료계 재계 시민단체 예술계 전문인 대학원생 등 109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여성생명연대는 성명에서 "우리나라 낙태의 98%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진행되고, 대부분 12주 미만에서 낙태가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임신 14주와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사실상 낙태 합법화"라면서 "그런데 이조차도 거부하며 임신 전 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사유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여성들의 주장은 태아와 여성 모두를 보호하자고 외치는 여성들을 분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낙태죄 전면 폐지는 여성의 고통 해결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다"며 "여성들이 준비되지 않은 임신,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고통받으며 도움이 필요할 때, 낙태만 법적으로 허용한다면, 여성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강요당하는 오히려 더 큰 여성 차별과 폭력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성연대는 낙태의 무분별한 허용이 아닌 낙태 예방과 임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독시민의 삶은...

이화신학공동체 웨비나 개최

전 세계와 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환기를 맞이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독 시민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웨비나가 열렸다. 이화여대 여성신학연구소(소장 안선희 교수)와 기독교학과, 신학대학원 등 이화여성신학공동체는 일과 14일 오후 3시 30분-6시 30분에 '전환의 시대: 기독 시민, 어떻게 살 것인가?'(포스터)를 주제로 실시간 줌(Zoom) 웨비나를 진행했다.

웨비나는 정치·경제, 기후변화, 예배 생활, 정신건강 등 4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7일엔 먼저 홍기빈 전 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가 연사로 나서 '코로나19, 무한욕망, 기독교'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이 '기후위기, 파국적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라는 주제로 기후변화에 관해 다뤘다.

14일엔 안선희 교수가 '온라인 예배 실행,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강의한 후 장정은 박희규 장정은 이화여대 교수의 대담이 이어진다. 두 교수는 '힘의 분석과 목회상담'을 주제로 기독시민의 신앙생활에 대해 논의했다.

안 교수는 "단순히 교회의 흥망을 문제 삼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위기의 시대, 전환의 시기를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웨비나를 기획했다"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찰하고, 교회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소한 기독 장례 · 결혼 정착 기회로"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 개선 움직임 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결혼과 장례 문화가 바뀌고 있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이번 기회에 간소한 장례와 결혼 문화를 확산하자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기독교 장례 준칙을 만드는 등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단체도 곧 닻을 올린다.

코로나19 이후 염습을 하지 않는 '무(無) 염습 장례'가 나타나고 있다. 염습은 시신을 씻긴 다음 몸의 구멍을 모두 막고 옷을 입히는 장례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경우 감염 우려로 염습을 하지 않고 있다. 기독교 장례문화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무 염습 장례를 정착하자고 말한다. 염습을 하지 않으면 장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송길원 하이패밀리 대표는 5일 "시신을 아랫목에 모셔두던 풍습 때문에 반드시 염습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시신을 냉장시설에 보관하고 장례기간도 짧아져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코로나19로 무 염습 장례가 확대되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문화를 정착하자"고 말했다. 대신 문상객들이 고인의 삶을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장례 절차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고인이 연주하던 악기나 생전 받은 훈장 등을 전시하는 추모 테이블을 만들어 고인의 삶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추모하는 새로운 장례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염습을 생략하면 장례식장이 아닌 교회에서도 충분히 장례식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것도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기독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메멘토 모리 기독시민연대'(시민연대)도 오는 10일 온라인 출범식을 갖는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의 라틴어다. 시민연대에는 이규현(수영로교회) 채수일(경동교회) 목사, 김형석 전 연세대 교수, 김신 전 대법관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한다. 시민연대는 기독교 장례 모델을 발굴하고 교인들에게 '죽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독교 장례 표준 준칙'도 만들어 기독 장례문화 정착에 나선다.

코로나19로 결혼문화의 변화도 감지된다. 혼인 건수부터 급감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7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신고된 혼인 건수는 1만7080건으로 1년 전보다 10.9%(2098건) 감소했다.

결혼식을 하더라도 간소하게 치르는 게 대세다. 박종영(32) 디멘나 그레이스(27) 부부는 지난 7월 야외 결혼식을 했다. 예식도 기존의 틀을 깼다. 각자 쓴 편지를 낭독하는 것으로 혼인서약을 대신했고, 세족식을 통해 서로를 섬기며 살기로 다짐했다. 하객에게는 바비큐를 대접했다. 결혼식에 쓴 비용은 150만원 정도였다.

박씨는 "코로나19로 실내 결혼은 엄두도 낼 수 없었고 하객도 많이 초청하는 게 불가능했다"면서 "평소에도 아내와 함께 간소한 결혼식을 꿈꿨는데 코로나19로 규모를 더 축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정말 가까운 친구와 가족만 모여 무척 의미 있는 결혼식을 했다"면서 "간소한 결혼식이었지만, 너무 큰 축복을 받아 기쁘다"고 전했다.

中 목회자들 선언문, 中대사관으로

한국 VOM, 전세계 기독인 4400명 서명 전달

한국 순교자의 소리(한국 VOM, Voice of the Martyrs Korea)는 중국 목회자들을 지지하는 이들의 서명이 담긴 28쪽 분량의 목록을 서울 주재 중국대사관에 발송했다. 이 목록에는 중국인 목회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한국교회 기독교인과 전 세계 기독교인 4,400명의 서명이 기록돼 있다.

한국 VOM은 온라인 웹사이트(www.chinadeclaration.com)를 개설해 신앙선언서를 작성한 439명의 중국인 목회자들과 연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중국어 원문 신앙선언서는 물론, 한국어와 영어와 러시아어로 번역된 신앙선언서도 함께 이곳에 올려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한국 VOM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2019년 9월, 중국 목회자 439명은 '목사들의 공동 성명: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했다. 청두 시에 있는 이른비언약교회 왕이(Wang Yi) 목사가 작성한 문서였다. 나중에 그는 100명이 넘는 교인과 함께 체포되었다. 왕이 목사는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고, 이 문서에 서명했던 목회자 다수가 왕이 목사와 비슷하게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난 뒤, 우리는 www.chinadeclaration.com을 개설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서명했던 중국 목사님들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에 알려주고 싶었고, 중국정부가 그 목사님들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계속 보도할 것이라는 점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마침내 4,400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이 청원서에 서명했다. 처음에 서명했던 중국 목사님 한 명당 10명의 기독교인의 지지를 받은 셈"이라고 전했다.

통일교, 해외인사까지 동원 행사 개최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 단체로 규정된 하늘부모님성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한학자 교주)이 '평화' '화합' 등을 기치로 내세운 자체 행사에 해외 유명인사들까지 동원하며 교리홍보와 조직의 세 과시에 나섰다.

통일교는 지난달 27일 '제2회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100만 희망전진대회'를 개최했다. 통일교 측은 이번 행사가 전 세계 199개 방송국을 통해 송출됐다고 홍보했다. 또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 호세 마누엘 바로소 EU 집행위원장 등이 기조연설자로 나서고, 굿럭 조나선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토마스 월시 천주평화연합(UPF) 세계의장 등이 환영사를 했다며 대대적으로 알렸다.

한학자 교주는 이날 "세계의 지도자와 인류들이 결단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진정한 평화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며 "그 날이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평화를 내세우며 은연중에 자신들의 교리를 담은 것이다.

탁지원 현대종교 소장은 이처럼 통일교가 평화와 화합 등을 내세우며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로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교리 완성을 이루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탁 소장은 지난 29일 "통일교의 핵심 교리는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은 사망 전까지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을 외쳐왔다"며 "결국 통일교는 평화, 화합, 지구 환경과 같이 전 세계가 공감할 만한 주제로 꾸준히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의 리더로 올라서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울증과 영적 치유" (26)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분노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용서 가능
슬픔과 상실감에 집착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해
학대받은 상처, 치유 회복의 소망 잃지 않도록

다음은 당신이 가진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몇 가지의 예이다.

1)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우울함을 겪는 많은 사람들은 분노와 비탄으로 고통을 당한다. 우리는 사람과 상황을 다루기 위한 이해와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만 문제를 쌓아두지 않게 된다. "영적 처방 5. 모두 용서하기" 편을 읽고 회고와 묵상하며 영적 실행을 따르라.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여 용서하는 것을 배우라.

기도: "주님, 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 슬픔과 상실감

우울증을 겪는 많은 이들이 슬픔과 상실감으로 고통을 당한다. 슬픔과 고통에서 치유를 얻고 나면, 그들은 우울증으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일시적임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이 잃은 것을 생각하며 계속 슬퍼하기보다는 가진 것에 감사하라. 욥기를 읽고 그가 어떻게 상실한 것을 감당했는지 알아보라. 슬픔은 많은 문제를 낳게 한다. 당신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슬픔의 방에 들어가게 되고 다른 여러 개의 방에도 들어가게 되므로 슬픔의 방에서 나오기 전에 그 문제들을 먼저 돌봐야 한다.

우선 어떤 부분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라. 분노, 비탄, 후회, 용서하지 못함, 집착, 잊기, 후회 등의 모든 감정, 슬픔과 상실감으로 야기된 감정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픔에 사로 잡혀 꼼짝달싹 못할 수 있다.

슬픔과 상실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모든 분야를 돌아보고 쓰기를 시작하여 주님께 치유를 구하라. 치유를 위해 용서편지와 사랑편지, 이별편지 등과 같은 글을 쓰라.

기도: "예수님, 저의 모든 아픔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상실감을 치유해 주세요. 저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것과 우울한 기억과 고통으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셔서 저의 삶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 저의 치유를 맡깁니다. 당신의 지혜와 이해를 주세요. 저의 사랑하는 이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려는 저의 욕구와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며 생긴 상처도 모두 가져가 주세요. 제가 저를 포함한 모두를 용서합니다.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기억이나 그 어떤 계기도 놓아주세요. 이 슬픔과 비통함의 영적 감옥에서 저를 풀어 놓아주세요. 제가 주안에서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일시적인 선물일 뿐이지만 주님이 저에게 영구한 선물인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저의 힘이요 기쁨입니다. 저를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사 상처받아 아파하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 학대와 상처

학대받고,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을 지낸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우울증을 겪는다. 그들은 과거에 사로잡혀 공포에 혼란스러워하며, 아픔 속에서 산다.

만약 당신이 충격을 받은 경험에 고통스러워한다면, 문제점을 적어 놓고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기 바란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신의 기억을 치유하시고, 당신을 회복시킬 것이다. 어려움을 떠올리게 하여 고생한다면 당신은 치유가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나는 심리적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치유되는 것을 보아왔다. 당신이 정상적으로 치유될 것이란 희망을 버리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라.

기도: "주 예수님, 저는 고통으로 상처를 주던 과거의 문제가 떠올라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영혼이 부서지고 깨어졌습니다. 저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고쳐 주시어 다시 기억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당신의 큰 손에 저를 맡겨 드리오니, 저를 안수하시어 치유해 주세요. 권능과 지혜, 소망,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진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당신이 제 마음을 치유하신다는 강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저를 아프게 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 저에게 가진 분노, 원한, 분한 마음을 품게 한 사람이나 상황을 떠나보내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제 과거를 고쳐 주심을 깨닫게 하시어, 상처 입고 고생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과 치유 받는 길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주님의 마음과 손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nghui.mcdonald@gmail.com

선교 편지

케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하시는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오랜만에 문안드립니다.

케냐

케냐 정부는 4월 6일부터 나이로비, 4월 8일부터 몸바사, 킬리피, 콸레를3주 동안 도시 봉쇄령을 내렸고, 4월 25일에 3주를 연장했고, 5월 16일에 또 3주 연장, 그리고 6월 6일에는 30일 연장해서 7월 6일까지 모두 13주 동안 나이로비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생활비, 건축비도 떨어지고, 물건도 구하기 쉽지 않았고, 210에이커에 저희 둘만 떨어져 있었습니다.

7월 7일에 7월 27일까지 확진자의 상황을 보고 확진자가 많아지면 다시 봉쇄령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조건부로 봉쇄령을 해제했었는데, 봉쇄령은 다시 내려지지 않았지만 통행금지는 계속 있었고, 9월 29일부터 통행금지는 밤11시부터 새벽4시까지로 완화되었습니다. 교회들도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인터넷이 없어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7월 6일부터 대면예배를 드리는데 100명까지 모이고 1시간을 넘기지 못하며 (예배시간은 보통 3시간), 13세부터 58세까지만 모이게 했는데, 8월에는 3세부터 65세까지였습니다. 거리두기, 마스크, 열을 해야 하고, 세정제나 물, 비누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싱가 신학교, 선교사 훈련학교

정부가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져서 4월 특별과정과 일반 과정의 5월 학기에는 대면수업이나 인터넷 수업도 할 수 없어서 강의 교재를 나눠주고 혼자 공부하여 시험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학기인 5월에 신입생은 일반과정 11명, 특별과정10명 모두 21명이 들어와서 신학생은 일반과정 25명, 특별과정 39명, 모두 64명이 공부합니다.

교육부에서 내년 1월부터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다시 방침을 바꿔 10월 5일부터 수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학교가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 훈련학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사역

교육부에서 내년 1월에 대면수업을 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다시 회의를 하여 안전해지면 초등학교를 다시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조금 더 있어야 발표가 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마다 준비를 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를 조사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각 학교마다 가서 점검하여 다시 열 수 있는지를 봅니다. 선생님들은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무급 휴직으로 있어서 많이 힘들어 해서 3월과 8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있는 학교, 선생님,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 4일부터 초등학교 내에 예배를 드릴 처소를 건축하여 담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랜 동안 같이 일하면서 관리와 감독을 맡았던 므이야가 올해 유난히 나이로비 병원을 많이 다니고 피곤해 했습니다. 7월 중순까지 건축을 하고 8월초에 안식월을 가기 위해 나이로비에 있는 중에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 다음 주에 돌아갔습니다. 남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이애경 선교사는 2월부터 부루셀라가 재발되었습니다. 아주 지독한 치료약을 6주를 먹어야 하는데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서 5일 먹고 부작용이 생겨 더 이상 약을 못 먹고 힘들어 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면 좋은 음식을 먹고 약을 먹으면 치료 될 것 같아 안식월을 생각하는 중에 8월 1일부터 국제선 운항이 열려서 치료차 8월 6일에 미국으로 들어와 필라델피아에 있는 딸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으며, 영, 육으로 건강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주실 것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2020년 10월 이사야, 이애경 선교사 드립니다.

isaiah.lee@aimint.org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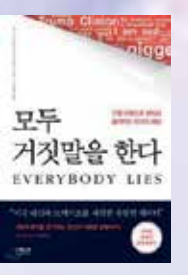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드,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0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 씩의 부상이 전달 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신영, 시와정신사



모두 거짓말을 한다
세스 스티븐슨 다비도위츠, 더퀘스트

침묵
엔도 슈사쿠
홍성사

말그릇
김윤나
카시오페아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리처드 탈러, 리더스북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후 원 /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복 있는 사람(시1:1)

팬데믹의 시기에 다시 시편을 출발하면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은 기도로 쓰여진 찬양과 시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원어에 보면 "아! 복되도다! 그 사람!"이란 뜻입니다. 진정 매우 복된 사람, 복이 넘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한다"는 것이 세 번 계속되는데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복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악을 따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악을 따르지 않고 악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화 복 있는 사람(시1:2)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과감하게 끊는 것이었다면 2절은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1절과 2절 사이에 강한 강조를 의미하는 "키임"이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는데 "그러나 오히려"라는 뜻입니다. 복이 넘치는 사람은 악을 결코 따르지 않지만 "그러나 오히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묵상하다"는 "입속으로 말하다, 마음으로 이야기하다, 되새김질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이 넘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입속으로 말하고 반복해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수 복 있는 사람(시1:3)

히브리원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뜻은 "나무가 옮겨 심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어느 곳에 흐르는 큰 시내는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시내입니다. 그런데 그 시냇가에 척박한 땅에 심겨 있었던 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나무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옮겨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무가 척박한 땅에서는 제대로 자랄 수 없고 열매 또한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시냇가로 옮겨 심었더니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받아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됐다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목 복 있는 사람(시1:3-4)

복 있는 사람은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풍성한 과실을 맺고 하는 일마다 결국은 잘됩니다. 내가 시냇가에 옮겨져서 내가 하나님께로 옮겨 심겨져서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구나 하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시절을 좇아 많은 과실을 맺어서, 오고가는 짐승들을 먹게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므로 생명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말씀으로 도와주고 남을 위해 기도해주는 이 도와주는 삶, 결국 풍성한 과실을 맺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시들지 않는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계속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금 복 있는 사람(시1:4-6)

우리가 왜 복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봐주시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6절 초반 "인정하고 계신다"는 뜻은 "보고 있다, 알고 있다, 끝까지 악을 막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고 계시고, 저희들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가 저희를 끝까지 악에서 구하시고 안전하게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길을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말년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냇가로 옮겨 심으셨기 때문에 그 옮겨 심은 의인을 끝까지 인정하십니다. 그 어떤 심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2:1-3)

시편 2편은 땅 끝까지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시입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먼저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헛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함은 이 세상의 악한 습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을 벗어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줄 알고 헛된 일을 행하지만 마치 발뒤꿈치로 송곳을 차는 어리석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하는 복음을 가슴에 품고 오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요! 진정 더욱더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COVID-19)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 (5)

이희갑 목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청소년 코로나 피해 심각, 확고한 영적 아이덴티티 심어줘
일상적 스케줄 갖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과 교제 권장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입시다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 미국인들의 41%가 불안, 우울, 약물중독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조사가 발표되기도 했다. 부모들은 부모대로 아이들은 또 그들대로 우리 모두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가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계속 치솟고 있는 실업률에 성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한창 밖에서 재미있게 놀아야 할 아이들은 집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교회는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 교회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할 그룹이 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고등학생(특히 12학년)과 대학생들이다. 그들이 느끼는 불안과 좌절, 그리고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심각하며 그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압박감과 공포는 상당하다.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보통 청소년들이라 하면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를 의미한다. 대학생들을 청소년으로 치부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청소년이 아직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하지 않는 세대들을 말한다면 그들도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이들은 꿈 많은 젊은 세대들이며 우리 사회의 내일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코로나는 이들의 꿈과 미래의 소망을 빼앗아가 버리고 지금도 불명확한 내일을 대신 좌절과 불안으로 대체시켜 버렸다.

특히 대학을 준비해야 할 고등학교 12학년들의 경우 코로나는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좌절을 안겨 주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이후부터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지금도 온라인과 원격교육을 통해 수업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상당부분 학습의 기회를 이미 잃어버렸고 이로 인해 학교를 정해진 기간 내에 졸업할 수 있을까 특히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대학생들의 경우 코로나로 아르바이트 및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기회를 잃어버림으로 상당부분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들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 상당한 정도 변경된 커리큘럼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런 환경 속에 공부를 하면서 계획대로 졸업할 수 있을까 또는 졸업 후에 원하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하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수업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비록 캠퍼스 기숙사에 머물 수 있다 해도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엄격한 학교방역지침으로 홀로 고립된 생활을 지내야 한다. 결국 우리의 청소년들에게는 부모보다 중요한 사회적 타자들 (예를 들면 친구, 선생님, 교수님, 코치, 어드바이저 등)과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코로나는 이런 기회를 막아버렸다. 그리하여 코로나 이후 이들의 정신적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조사가 발표되어 우리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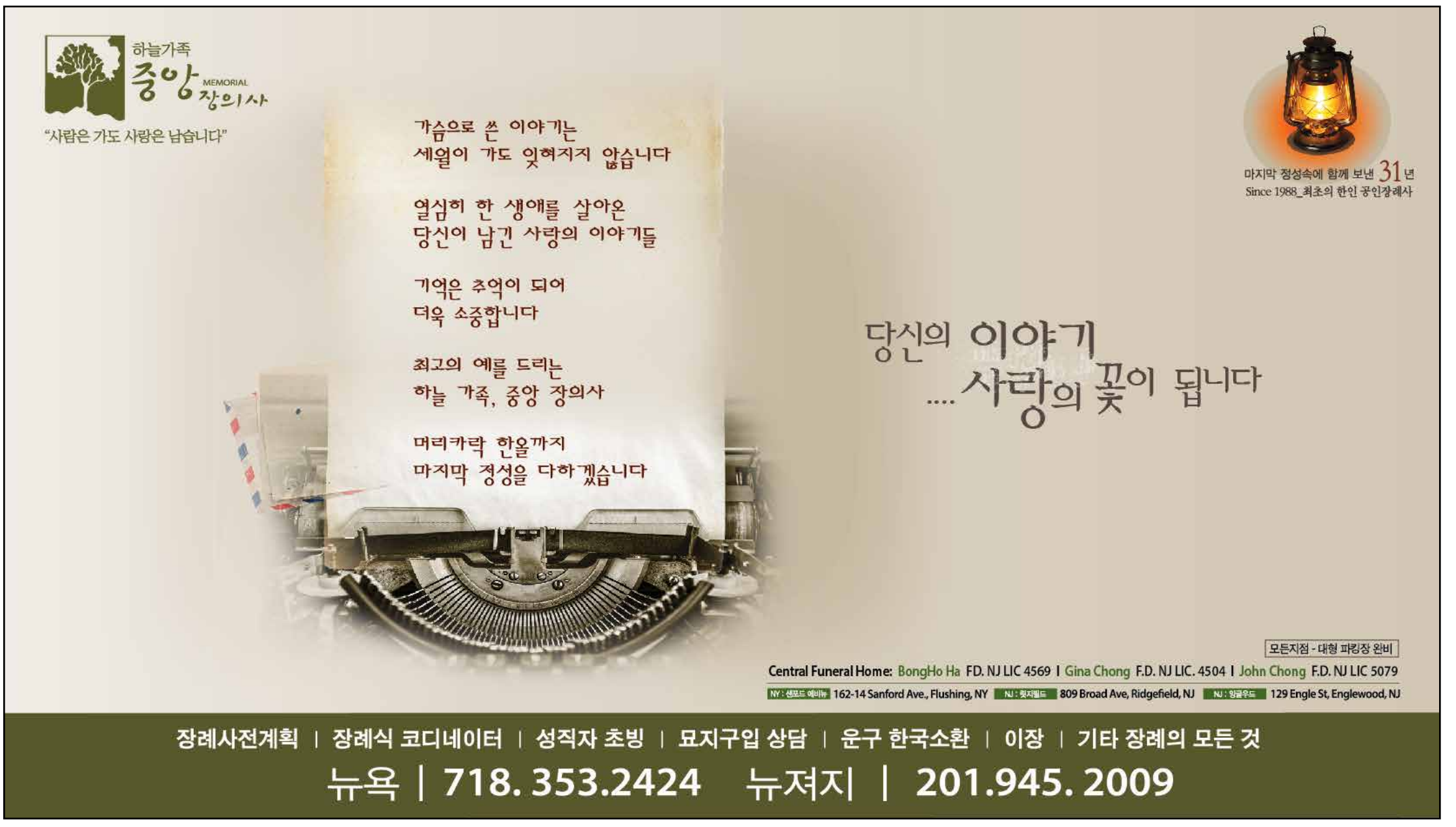
예를 들면 미국 질병관리본부(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지난 6월 발표에 따르면 미국 18-24세 청소년 4명중 1명이 자살을 시도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11%는 최근 1개월내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대학생들 중 58%가 극심한 불안증세로 고통 받고 있어서 향후 대학교 및 지역 상담기관을 찾는 학생들의 숫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인들은 코로나가 시작되자 총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이로 인하여 우울과 스트레스에 빠진 청소년들이 총기를 이용한 자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에 의하면 2020년 3월-7월 사이 미국인들의 총기 구입은 전년도에 비해 2배로 늘어났는데 2020년 6월 한 달 총기판매는 총980만 정으로 지난해 580만 정에 비해 60% 증가하였다.

우리 청소년들을 지킵시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2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퇴행적, 자기 고립화의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자신을 혼자의 벽 속에 가두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한 과도한 반응, 필요이상의 무절제한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 결국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 교회는 특별한 대책으로 코로나로 인해 야기된 우리 청소년들의 불안, 스트레스를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면으로 계속〉



니카라과 구호물품 전달

지난달에 이어서 9월 30일 오전 10시 30분 마사야제일장로교회에서 구호 물품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Denis Romero 목회자의 찬양 인도와 Enrique Zamora 목회자의 기도, 이동홍 선교사의 이사야 41:13 말씀과 "캠브리지장로교회와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 이명삼 목사 가정의 사랑과 섬김으로 9월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었노라"고 그 과정을 설명하고 저들을 위한 기도를 당부하였습니다. 18 장로교회 88 가정에 쌀, 붉은 콩, 설탕, 식용류, 옥수수 가루를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였습니다.

선교사 이동홍 드림

missionnica21@gmail.com

유경옥 목사가 설치미술 물방울 퍼포먼스를 설명하고 있다.

유경옥 목사, 백령도에서 설치미술

미국 청교도 400주년 맞아 선교 열정 다져

청교도복음연구회 가정사역원 원장이며 화가인 유경옥 목사(한국 마굿간교회 담임)가 미국 청교도 400주년을 맞아 한국의 플리머스라 할 수 있는 남한의 최북단 백령도에서 퍼포먼스로 물거품을 가져가 설치미술을 했다.

유경옥 목사는 "청교도복음연구회는 영국 플리머스 항에서 모이거나 3년간 배 수리를 위해 떠났던 플리머스호2가 돌아오는 미국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 항에서 만나자는 계획도 있었으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모이질 못해 저 혼자라도 400주년 미국청교도 시작을 기념하며 예배의 자유를 수호하고 선교의 열정을 다짐하기 위해" 이번 퍼포먼스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유 목사는 "흔히 1885년 4월 5일을 당시 부활절을 기해 장로교와 언더우드목사와 감리교의 아펜셀러 목사가 제물포에 하선한 것을 프로테스탄트 한국선교의 첫 선교사로 알지만, 1832년 구츨라프 독일 유태계 목사가 처음 백령도에 하산, 선교했고 1865년 토머스 목사님의 연평도 방문, 중국 성경책 선교, 1866년 토마스 목사님이 제네랄셔먼호를 타고 통역관으로 왔으나 평양대동강변에서 배에 탔던 사람들 23명과 함께 죽임을 당해 첫 순교하심을 기리고 또한 목회와 선교의 사명의식을 고취하기위해 이번 퍼포먼스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원정 기자〉

코비드 (COVID-19)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 (5)

〈14면에서 계속〉

무엇보다도 교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아이덴티티를 확고하게 심어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드로전서 2:9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자녀들의 특징을 4가지로 요약했음을 기억하게 하라. '택하신' '왕 같은' '거룩한' 그리고 '특별한(소유)'이 모두 우리 청소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교회에서 가정에서 가르쳐야 한다. 또한 인생에 있어 힘듦과 스트레스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기제가 됨을 가르쳐야 한다. 성경은 어려움과 힘든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게 함을 말하고 있다(약 1:3-4; 살전5:23).

둘째, 일상적인 스케줄을 수립, 이를 따르도록 한다. 매일의 일과를 정해진 시간표대로 지키고 항상성을 유지하되 너무 세부적으로 자신을 속박하기보다는 심플하고 단순하게 세워 스케줄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한다.

셋째, 다른 사람과 교제하도록 적극 권장하라. 청소년 시기는 중요한 사회적 타자들과의 상담하고 조언을 얻는 것이 매우 유익한 시기이다. 또한 친구들과 대화와 소통, 토론과 논쟁 등을 통하여 식견을 넓혀가는 시기이다. 특히 요즘에는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하여 쉽게 대화의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전화, 비디오, 구글 행아웃, 줌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대화하도록 조언하라. 또한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원격교육을 통한 상담, 강연, 초청 강사의 기회 제공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hlee0414@gmail.com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18.가정파탄의 10가지 원인

1930년 경제공황 이래로 최악의 경제위기 가운데, 요즘 들어 파탄에 이르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러워도 가정이 든든하면 그 가정에서 힘을 얻고 안정을 누리고 어떤 시련도 극복하여 나갈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어질 수 있을 터인데, 가정이 흔들리고 나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가정이 흔들려 파탄에 이르게 되면 가장인 아버지(남편)는 용기를 잃게 되고 가정을 내조하는 어머니(아내)는 절망하게 되고 아들과 딸들은 울타리를 잃어 끝없이 방황하게 되므로 결국 가정의 파탄은 크나 큰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맙니다.

가정이 그렇게 흔들려 파탄에 이르기까지는 10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1. 부권(아버지 권위) 상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의 대표, 머리(Headship)로 아버지(남편)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산업화, 민주화, 교육평등화 등의 영향으로 여권이 신장하고 여성상위시대가 되어 부권(아버지 권위)이 상실되므로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권 상실, 물질만능주의, 문란한 성생활, 가정폭력 무책임한 부모, 이혼만연 사회풍조, 메마른 인간성 무절제 생활, 인권주의 여권주의 지나친 자유주의

2. 물질만능주의적 가치관

한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려면 가족구성원들의 가치관이 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없어서, 가정의 모든 문제를 돈(물질)으로만 해결하려는 물질만능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3. 바르지 못한 성생활

성생활은 건전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결과 절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혼외정사와 성적 불륜 등이 너무 일반화되어 온전한 부부관계가 아닌 잘못된 성생활이 바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4. 가정 안의 폭력

옛날에는 대가족제도의 가부장적 권위의 남편 폭력이 기승을 부렸지만 요즘에는 거꾸로 폭력 아 내들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매 맞는 아내, 매 맞는 남편, 매 맞는 자녀들의 상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같은 가정 안에서 난무하는 가정폭력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5. 맞벌이 어머니들의 증가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 교육평등화 등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직장생활을 하는 맞벌이 어머니들이 증가하면서 자녀들을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자녀교육에도 등한시 하게 되어 파탄에 이르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사회풍조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백년해로' 하겠다고 다짐했던 결혼풍조가 급격한 사회변화의 조류 가운데, 이혼을 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재혼, 삼혼도 불사하는 저질적 사회풍조로 급변하면서 가정이 파탄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7.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무책임과 무지

희생과 헌신을 불사하며 '자녀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 알고 살아왔던 부모들이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맞벌이로 산업전선에 뛰어들다 보니, 자녀교육에 무대책, 무책임, 무지로 자녀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8. 메마른 인간성

도시화, 산업화, 부부중심의 핵가족화 등으로 부정(父情)과 모정(母情)이 상실되어 메마른 정서, 메마른 인간성으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9. 그릇된 인권주의, 빗나간 여권주의, 지나친 자유주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분명한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아버지(남편), 어머나(아내), 자녀들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가정의 질서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는 그릇된 인권주의, 빗나간 여권주의, 지나친 자유주의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10. 절제 없는 생활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가정을 돌아보는 책임을 잊고 술, 마약, 도박 등의 헛된 일에 절제 없는 생활에 열중하므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뉴 패러다임 목회와 선교를 위한

Dynamic pastoral leadership

목사, 선교사를 위한 리더십 박사학위 과정

Doctor of Leadership 48 학점과정
Pastoral Leadership, Mission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60 학점과정
Pastoral Leadership, Mission Leadership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636) 327-4645 usa@midwest.edu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서론0: ON라인 전쟁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1, 2차 산업 혁명을 지나고 역시 1, 2차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인류는 '컴퓨터'라는 기형을 낳았습니다. 컴퓨터는3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게 되고 발전을 거듭하여 '인터넷'이라는 또 다른 기형과 함께 마침내 '스마트폰'을 낳았고 이젠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등장은 '인간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지만 '스마트폰'의 탄생으로 손 안에 들어간 컴퓨터로 말미암아 인간은 '컴퓨터 의존'을 넘어 보이지 않게 '컴퓨터에 의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는 인간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앙통제시스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SNS의 세계는 이 시대의 '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구글은 '유투브'라는 '첨단 바보상자'를 앞세워 이 시대의 정신세계를 좌우하고 말 그대로 off라인 세상이 아닌 on라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면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해도 순종하였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의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들은 누가 뭐라 해도 '인터넷'과 '유투브', 각종 'SNS'를 통해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 '인생관' 심지어 '신앙관'까지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점점 on라인 속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각종 SNS와 유투브만 있으면 인생을 의미 없이, 가상의 현실에서 진리를 외면한 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각종 SNS와 유투브 현장, 그 처절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오직 우리의 영적 무기되는 '생명의 말씀'을 올리는 사역이 '21세기 말씀의 삶, 영상사역'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10:13, 14).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 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겔3:16-19).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겔3:27).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치고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논리가 아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off라인 세상만이 아닌 on라인 세상에도 전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더 문명화 될수록 우리는 더 변함없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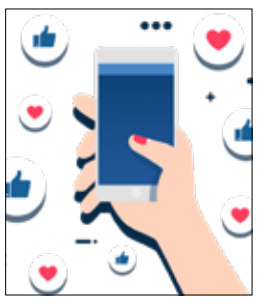
베드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행2:14-36)을 듣고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행2:37)하며 마음을 찢든 스데반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행7:1-53)을 듣고 마음이 찔려 '이를 갈며'(행7:54)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컴퓨터'와 '영상'이 주도하는 21세기입니다. 선진국, 후진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인 나라, 가난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off라인뿐만 아니라 on라인 영역에서도 싸워야만 합니다. 점점 영적 싸움의 처절한 전쟁, 치열한 전쟁이 바로 보이지 않는 곳, 가장 은밀한 곳인 on 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내가 싸우고 싶은 곳, 내가 싸울 수 있는 곳에서만 싸우겠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쪽은 너무 열악한데 상대쪽은 너무 강력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하고 협력해야 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21세기 말씀의 삶, 영상사역을 통해 '시초성말', '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하는 말씀이 'One Story'입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그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초성말', 'One Story' 영상을 통해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는 것이 '21세기 말씀의 삶, 영상사역의 목표'입니다.

갈 수 있으면 가야 합니다. 가서 만나 들려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갈 수 없으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멈추게 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지만 세상은 결코 복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hfamilyfa@gmail.com



One Story, 시대를 초월하는 성경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컴퓨터에 통제받는 이 시대, 전 세계 off on라인 영역에서 싸워야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턱관절 질환

-40대 중반의 여성 박 모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던 중 오른쪽 귀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타이레놀을 먹었지만 귀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입을 벌리면 증상이 더 심해졌다. 박 씨는 귀에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비인후과에 찾아갔지만 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박 씨는 젊어서부터 치아를 심하게 가는 습관이 있었다. 의학적 검진상 박 씨의 앞면 좌우가 비대칭으로 보였고, 입을 벌린 상태에서 우측 턱관절을 만질 때 통증이 왔다. 육안으로 볼 때 턱관절이 부어있지는 않았다. 박 씨는 턱관절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이것이 두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귀 자체의 통증과는 무관하다는 말을 들었다. 또 치아를 심하게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만성 턱관절 질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절교합장치를 쓰고 잠을 잘 것과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시작하도록 했다.

턱관절 질환은 주로 20-30대 젊은 여성들에서 안면 통증의 원인으로써 두통 다음으로 흔하다. 주된 증상으로는 통증이 귀나 턱, 혹은 경추부위로 전달되고 음식을 씹을 때 두통이 나타난다. 때로는 환자 자신도 턱관절의 이상을 모른 채 만성두통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 증상은 스트레스가 심할 때 더 자주 나타난다.

턱관절 질환의 진단은 대개 병력과 이학적 검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MRI 검사가 필요 없지만 치아의 이상을 보거나 약관절 디스크의 위치나 모양을 보기 위해서 추가적인 방사선 검사를 할 수도 있다.

턱관절 질환의 치료는 감염이나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같은 염증 질환이 아닌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근에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는지 물어 보아야 한다. 또 수면 중 치아를 가는 습관이 있는 경우는 교정을 해주어야 한다. 부드러운 턱 운동은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는 진통제를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타이레놀이나 소염진통제를 쓰고 심한 경우는 근육이완제를 함께 쓸 수도 있다. 약물치료에 효과가 없을 때는 외과적인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특히 턱관절 내 심한 관절염이나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외과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경우 통증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문의:213-383-9388

한부모가정사역

〈8면에서 계속〉

결혼의 형식을 거치지 않은 채 부부관계를 갖는 것은 음행이며, 이는 육체적 결합 이상의 것으로, 헤어질 경우 영적, 정서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고전6:18).

마지막으로, 한 부모 삶의 패턴 중 '홀로 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홀로 서기란 혼자 됨을 기회로 생각하며 삶의 목적을 향해 몰두하는 것으로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로 유명한 채프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배우자가 채워주길 기대한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 내면의 안정, 삶의 결과에 대한 확신, 삶의 기쁨 등은 결혼생활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다.'

성경속의 인물인 삼손의 삶을 돌아봅시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 몰락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삼손의 삶을 그려보면서, 또 곁에서 지켜보는 자녀들을 고려해서라도 한부모님들께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자 마음먹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사54:5).

hyojungyoo2@yahoo.com

지금은 "환란(患亂 COVID 19)" 날이기에 부르짖어 기도(렘33:3, 슥4:6)할 때입니다.

당신은 진정 행복(幸福) 하십니까?. 당신은 지구 위, 78억분의 1의 무가치(無價値)한 존재가 아닌, 온 우주 만물 중에 유일무이(唯一無二)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단독자(單獨者)로서, 참 사랑 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너무도 존귀(尊貴)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참으로 불치병(病) 치유, 응답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원하는 만큼 예레미야 29장 11-13절을 의지해서 더 간절히 부르짖는 강청(強請)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담임목사는 한국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과 인디아나 그레이스신학대학원 선교학박사(D. Miss, 2012), 20년 중앙아시아 주재선교사, 2017남가주종교개혁 500주년 및다민족연합기도대회 사무총장, 2012 제6차 시카고, 2016 제7차 아주사 KWMC세계한인선교대회 새벽기도(각4일)강사 및 한국, 미주, 유럽 한인청년부와 장년부흥사경회 강사, 현재, 총신대학교 켈리포니아총동문회 회장,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공동의장, 예수서원(기독교 변증) 총무, 남가주 청교도 영성 아카데미(효, 기도와 전도, 예수변증) 원장입니다. 저서로는 "청교도 신앙의 회복과 부흥"이 있고, 미주크리스천신문 "청교도이주400주년 특집"(www.chpress.net)으로 매주연재되고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는 행복찬교회

"행복찬교회"는 얼바인, 맥아더 비즈니스 구역(LA 40분거리)에 있는 1,2층 단독건물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외곽 기도원보다 더 조용하고 밤새 부르짖어 기도해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기도의 영성이 가득 쌓여있는 야곱의 사다다리,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주차공간이 넓어 주차하기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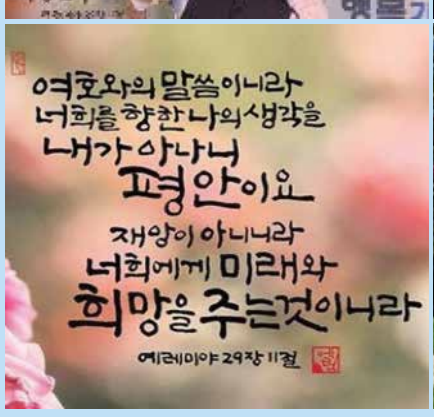
- 방역 (거리두기, 열감지, 마스크, 손 청결)에 최선을 다합니다. -

금요 성령 대망 찬양 기도회

1부: 성령 대망 찬양 기도회 8:30PM-11:30PM
8:30-9:20 PM(홍성희 목사-태필라특공찬양단장)
9:25-9:55 PM(설교-초청 강사)
10:00-11:30 PM(통성기도-김경일 목사)

2부: 철야 개인(자유) 기도회 12:00AM-04:10AM
12:00-12:10 AM 찬양 및 기도
12:10-12:40 AM 설교
12:40-01:00 AM 합심기도
01:00-04:00 AM 개인(자유) 기도

주일 낮 예배(12:00 PM)



남가주 행복찬 교회 S. C. Full Happiness Church 연락처: 1(213) 507-3875, 5195 | fullhappinessch@gmail.com 주소: 17702 Cowan Irvine CA 92614